전쟁군대없는 세계로 !!

非戰 환경과 反차별

NO. 6

목 차

WRI(War Resisters' International)

Ⅰ. WRI 는 무엇인가?[1)]

1. 전쟁종식을 위한 비폭력운동

WRI(War Resisters' International) : 1921년 창설

2. WRI 선언(The WRI Declaration)

WRI는 전쟁을 없애기 위한 비폭력행동, 군대 거부, 그리고 전쟁준비를 반대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서로 연합하기 위해 있다. WRI는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일한다.

1) 비폭력(非暴力)

WRI는 비폭력의 원칙을 따른다. 비폭력은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억압에 대항하여 목소리를 내며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행동양식이다. 비폭력은 시민불복종과 같은 적극적인 저항과 함께할 수 있으며, 억압구조에 대한 비협조와 새로운 대안을 위한 적극적 활동 또한 비폭력과 같이 협력할 수 있다. 갈등구조 속에서 비폭력은 각 사회구성원의 협조 및 단합과 여러 대안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화해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한다.

2) 비전(非戰)

WRI는 어떤 형태의 전쟁도 용인하지 않는다. 그것이 국가에 의해서건, 해방군에 의해

1) wri-irg.org에서 번역·정리함.

서건, 또는 유엔의 승인 하에서 군대가 개입하는 중재행위이든 간에, 전쟁은 어떤 합리화에도 결국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권력에 의해 이용된다.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이 인류를 고통과 파괴, 잔혹한 범죄, 인간존엄성의 배반, 그리고 또 다른 지배구조의 형성 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

3. WRI의 프로그램

1) 비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지계층의 저변확대

2) "The right to refuse to kill" Project

- 군대거부운동 및 지원활동
- 군대관련 망명자 구원활동
- 군대관련 연구 및 자료정리 활동

3) 과거 전쟁범죄 청산작업

-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규정짓는다. 과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

4. WRI 출판물 및 기타

1) 평화뉴스(Peace News) : 평화운동 활동가를 위한 계간지(The quarterly international magazine)

2) 부서진 소총(The Broken Rifle) : 4개 국어로 출판되며 WRI의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다룬다.

3) WRI Women : The WRI Women's Working Group의 잡지

4) wri-irg.org : 4개국어로 된 웹사이트로서 WRI의 활동과 회원단체의 사이트를 링크하고 있음

5) wri-info : WRI 및 세계평화운동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이메일 리스트

5. WRI의 이벤트

1) WRI 세미나 : 국제 세미나는 WRI의 네트워킹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보통 WRI

의 연례 위원회와 함께 세미나도 개최된다. 누구나 참가 가능.

2) Triennial Conferences : WRI가 3년마다 갖는 정기회의로 300 ~ 400명의 활동가가 참여. “폭력의 사슬을 끊으며” (브라질, 1994), “모두 함께 평화를” (크로아티아, 1998), “비폭력 저항과 사회변화” (아일랜드, 2002).

3) WRI 행동 : 두가지 국제행동의 날을 기획한다

① “5월 15일, 양심적 군대거부자의 날”로 1982년부터 시작되었다.

② “12월 1일, 수감자를 위한 평화의 날”로 전쟁을 반대하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투옥된 사람들에게 카드를 보내고, 대중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1920년대에 시작되었다.

6. WRI에 참여하기

- WRI는 전세계 35개국 이상에서 회원단체를 가진 독립된 네트워크조직으로서 단체나 개인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 WRI의 활동은 여러분이 보내주는 후원금에 의해 운영된다
- WRI본부주소 : War Resisters' International 5 Caledonian Road London N1 9DX Britain
- 연락처 : 전화 44 - 20 - 7278 - 4040, 팩스 44 - 20 - 7278 - 0444
- 이메일 : info@wri-irg.org
- 홈페이지 : http://wri-irg.org

7. WRI 멤버들(Sections and Associates)

앙골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영국, 캐나다, 챠드,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콰도르,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마케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푸아뉴기니,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우간다, 미국, 유고, 짐바브웨

Ⅱ. WRI 전략계획[2)]

1. 서론

WRI는 좀더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1995년부터 전략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조직으로서 WRI의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활동에 우선순위를 정해, WRI선언 정신에 좀더 부합하도록 하는 데 이 전략계획의 목적이 있다. 전략계획 수립과정은 아래의 네가지 기본적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1) WRI의 목적은 무엇인가?

2) 이런 목적에 비추어 WRI의 현황은 어떠한가?

3) WRI의 최종목표는 무엇인가?

4)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전략계획 수립은 멤버들의 의견을 얻을 수 있는 설문조사, 총회,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모든 멤버가 참여할 기회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WRI 행동원리(Statements of Principles)가 1997년에 개정되었다.

2. WRI 행동원리

- 1997년 6월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WRI 평위원회에서 채택

WRI는 아래의 WRI선언을 준수하는 각각의 독립적인 단체와 개인의 전세계적 네트워크이다(전쟁은 인간성에 대한 범죄이다. 이에 나는 어떤 종류의 전쟁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전쟁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을 맹세한다).

WRI는 전쟁방지를 위한 비폭력행동을 장려하며, 전쟁에 참가하거나 전쟁준비를 거부하는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지원한다. 이를 기초로 WRI는 전쟁없는 세상을 위해 일하며, WRI의 멤버쉽은 WRI선언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

2) wri-irg.org에서 번역·요약함.

WRI는 비폭력을 지향한다. 우리 모두에게 비폭력은 삶의 행동양식으로, 억압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항변하고, 각각의 개인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한다.

비폭력은 적극적인 설득과 저항운동(시민불복종운동) 등과 결합할 수 있다. 또한, 비폭력은 대안모색 노력과 더불어 억압의 사회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비협조운동과도 함께 할 수 있다. 때로는, 폭력에 관계할 때에 비폭력은 풀뿌리사회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 사회적 그물망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폭력을 줄이는 노력도 기울인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폭력노선을 고수한다.

전쟁은 피할 수 있는 조직적인 폭력이지만 그 근원은 매우 깊다. WRI는 사회구조의 변화,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지배구조”의 양상을 파헤쳐 그 근원을 밝혀내도록 노력한다. 지배구조는 사회적 약자의 억압과 자연종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배관계는 성별, 계층, 문화, 인종적 차이의 요인들에 기초한다. 그리고, 국가내부와 국가간에도 존재한다. 전쟁은 직접적인 무장군대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전쟁은 직접적으로 군인이나 정치인에 의해 수행되지만 그것에 동의하고 협조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전쟁은 상대방을 힘으로 지배하기 위해, 또 부의 확장을 위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종교, 이데올로기,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기도 한다.

WRI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부정의에 반대하고, 그러한 부정의를 유발하고 유지하는 군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WRI가 창설될 무렵인 1921년도에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었으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식민지화되어 있었다. 그 이후로도 산업국가들에 의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착취는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 착취의 양상은 불평등과 부정의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도 일으켰다. 이것은 제국주의 국가들간에 협력체제의 유지와 군사적 힘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 같은 군사력의 사용, 군비증강, 군사주의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변혁이 필수적이다. WRI는 무력에 대한 공포, 지배와 위계질서로 뒤덮인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 남녀평등, 문화와 민족의 다양성 존중, 그리고, 자연환경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

로 협력하고 노력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든 개개인이 발언권을 가지면서 권위가 아닌, 각자의 책임과 자발적인 상호부조를 통해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한다.

WRI는 그것이 “해방전쟁”이든, 유엔의 감시하에서든지,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전쟁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전쟁은 언제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유지에 이용되었다. 그럼에도 파시즘, 종족말살, 억압적인 독재정부와의 무력투쟁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억압적인 사회구조하에서의 우리가 군사정책에 반대하고 비폭력적인 연대를 만드는 노력을 하더라도 단기간에 그것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서 WRI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다. 우리는 전쟁이 고통, 파괴, 강간, 조직적인 범죄, 가치상실, 그리고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면서 이러한 전쟁에 반대한다.

WRI의 “비전(非戰)”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비폭력행동의 방법을 찾을 것이며 비폭력행동은 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는 비폭력노선을 견지할 것이며 그 노선하에서 수행하는 우리의 방법으로 비전(非戰)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전쟁과 폭력이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안다. 폭력은 사람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며, 또 다른 전쟁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WRI멤버들은 다양한 비폭력행동에 관여한다. 각 개인은 비폭력행동을 결심한 동시에 서로 협력하면서 비폭력 행동방식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WRI단체는 군복무나 국방세에 대한 거부, 무기생산과 거래 반대운동, 전쟁시에 평화주의자들과의 연대 등의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WRI단체는 전쟁 후나 전쟁 중에 전쟁 당사자들에게 대화를 촉구하면서 심리적, 물리적 재건을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소규모 지역경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모든 전략 뒤에는 “평화문화”의 정착이라는 기본적 주제가 깔려 있다.

- 우리가 사는 방식과 우리가 내린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전지구적이고 신성한 의식을 가진 문화
- 군사주의자, 인종주의자, 가부장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소외된 사람

들을 생각하는 문화
-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 “생각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행동은 지역적으로” 라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
- 폭력이 아닌 비폭력 수단으로써 갈등의 해결을 도모하는 문화

이를 위해 WRI선언은 중요한 첫걸음이다.

3. 장기 목표

1) 비폭력(비폭력운동 개념 확산, 비폭력운동 전략계발, 비폭력운동 조직구축)
2) 반군사주의(어떤 이유든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모든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노력)

4. 활동목표

1) 기본 활동목표
- 비폭력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
-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지속적 확산을 통한 군사주의 반대운동의 확대(서유럽에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보면 이 운동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군대의 직업화 및 현대화를 반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
- 전장에서의 비폭력적 민간인 개입운동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한 이해의 심화(평화여단[3]과의 공조, “전선을 넘는 여성들[4]”의 경험 연구 등)
-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지역의 사회복구, 개조 및 민주화를 위한 연구

2) 확대 활동목표
- 구조적, 철학적인 측면에서, 전지구적 접근을 통해 세계적 연대조직으로 전환

3) Peace Brigades International. 인권을 보호하고 분쟁에 대한 비폭력적 해결을 추구하는 NGO단체로, 분쟁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활동가를 파견하거나 지역활동가와 연대하는 업무를 주로 함.
4) Women Cross the Lines. 여성 평화만들기 프로그램(Women Peacemakers Program, WPP)의 일환으로서, 분쟁지역에서 여성들의 비폭력 직접행동 훈련을 주요하게 하고 있음. 이 훈련은 아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디아, 케냐, 루마니아, 타이-버마 국경지대, 짐바브웨 등등에서 이루어져 왔음.

- 군사주의 반대운동에서, 다른 문화와 전통에서 비롯되는 젠더문제의 인식
- 비폭력철학에 내재한 생태문제 인식, 환경운동 및 생태운동과의 연대(전쟁과 군대로 인한 환경파괴, 예로서 플로토늄 생산이나 석유전쟁 등)
- 비폭력철학에 내재한 경제문제 인식(사회의 불평등, 부정의를 야기하는 경제적 착취에 대한 이해와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비폭력적 경제모델" 연구)

5. 궁극적 목적

세계 각지의 전쟁저지 세력을 지지하고 연대를 구축하며, 모든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비폭력행동 실현

6. 기능

1) 연대구축(회의, 집회, 출판, 인터넷 등)
2) 국제적 캠페인과 직접행동 주도
3) 직접행동 지원(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 병역거부자 재판, 병역거부자를 위한 모금 지원)
4) 홍보 및 교육(사회변혁의 방법으로서 비폭력운동 확산)

※ WRI는 앞으로도 이 전략계획을 지속적으로 추가, 개정해 나갈 것이다. 좋은 계획이란 실현가능한 목표에 바탕을 두면서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Ⅲ. WRI의 멤버 소개[5)]

1. WRL(War Resisters League, 미국)

1) WRL의 철학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하에서, 모든 사람은 평화를 얘기한다. 하지만 그 평화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총, 군대, 폭탄을 원한다. 우리 WRL은 A.J. Muste가 말했듯이 다음을 믿는다.

“평화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 평화뿐이다”. 어떠한 국가적 방위목적이나 혁명을 위한 폭력의 사용을 우리는 반대한다. 간디, 소로우, 톨스토이, 킹, 데밍[6)] 등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처럼, 우리 WRL은 전쟁은 인간에 대한 죄악이라고 믿으며, 경제적, 인종적, 성적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사회를 이룩하는 데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 방법은 교육활동에서부터 비폭력 직접행동 데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 자매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WRL은 전쟁 자체를 없앨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쟁의 원인(폭력과 관계된) 또한 제거하려 노력한다. 우리는 직접적인 전쟁상태는 아니더라도 집 없고, 배고프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 또한 어떤 전쟁 못지않게 폭력적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폭력의 해결방법으로, 더 많은 감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그 해답을 찾으려 노력한다. 정부는 미사일이나 폭탄제조 등에 더 많은 재정을 집중하면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무시한다. 이에 WRL은 사회정의라는 대전제 안에서 평화운동을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힘이 있는 자가 지배하며,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정치, 경제적 권력이 쥐어져 있다. 페미니즘은 미국의 군사문화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경쟁과 공격적인(폭력적이기까지 한) 사회성향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인류생존은 폭력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달려있다. WRL이 추구하는 비폭력은 다소 급진적으로

---

5) WRL의 내용은 www.warresisters.org에서 번역하였으며, WRI - Japan은 WRI -Japan의 일부자료에서 번역한 것임.
6) 바바라 데밍(1917 - 1984)은 간디의 비폭력주의에 영향받은 여성 작가 겸 평화활동가로, 레즈비언으로 페미니스트운동에도 관여하였으며 WRL에서도 활동함.

보일 수도 있다. 사회적 변화는 언제나 고통과 비극을 수반하며, 평화주의자도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비폭력만이 가장 적은 희생으로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2) WRL 프로그램

WRL은 교육과 직접행동에 힘을 쏟는다. 교육적인 것으로는 평화에 관한 문학서나 잡지를 출간하고 매년 평화달력도 만든다. 직접행동으로서는 징병제도뿐만 아니라 온갖 형태의 군사문화에 반대하기 위해 데모를 조직하고 다른 단체와 연합하거나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또, WRL은 미국내에서 지역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들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WRL은 WRI 및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 국제평화사무소)와의 긴밀한 국제연대를 가지며, 세계각국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회의나 집회에 참가한다.

3) WRL의 역사

WRL은 세계 1차대전에 반대했던 사람들에 의해 1923년에 조직되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입영거부로 투옥되었다. 설립자들은,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반대를 외쳤다면 정부들은 전쟁참가를 주저했을 것이라 믿었다. 2차대전 중에 미국에서 수백명의 멤버들이 참전거부로 수감되었다. 그때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전쟁후에 출옥했을 때 WRL은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WRL멤버들은 옥중에서의 단련된 사고와 더불어 인도 해방을 위한 간디의 비폭력투쟁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 1950년대에 WRL멤버들은 시민권리(Civil Rights)운동, 핵실험반대, Civil Defense(시민보호) 그리고 『Liberation』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였다.
1960년대에는 평화그룹으로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에서의 미군철수를 주장했고, 징집센터에서 징병장 불사르기 등 시민불복종 데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WRL은 또, 1970년대를 통해 『WIN』이라는 잡지를 후원했으며, 핵발전소 폐기와 핵무기반대를 연계하는 운동을 펼쳤다.
80년대에는 여성운동에 깊이 관여했으며, 82년 비무장운동에 관한 UN Special Session(유엔특별회기)에서 대중집회와 시민불복종 운동을 주도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미국의 중앙아메리카 개입에 반대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징병제도와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의 조직에 도움을 주었다. 80년대말과 90년대초에 소련의 붕괴, 아파르트헤이트 종식과 더불어 중동회담성사는 평화가 곧 다가온 것 같았다. 그러나 보스니아, 하이티, 르

완다, 그리고 소말리아에서의 위기는 비폭력을 원하는 만큼 폭력의 정도가 더해갔다.

WRL은 어떤 정치집단으로부터도 독립된 위치에 있으며, 세계 어느나라든지 징병제도, 권위주의, 검열, 인종주의에 반대한다. 그리고 국제활동에 있어서는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위치를 유지한다.

4) WRL 자료들

- WRL 조직 매뉴얼
- 비폭력 운동가들
- 전쟁세금 저항
- 비디오자료
- 비폭력행동을 위한 소책자
- WRL 평화달력

※ 참고 : WRL 심볼

2. WRI - Japan

1) WRI 일본 선언문

① 나는 어떠한 전쟁도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군대 부서에도 편입되지 않으며, 병기나 전쟁용 자재를 제조하거나 다루는 곳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의한다. 또, 국가의 전쟁수행에 직접 참가하거나 도와주는 것을 일체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나 병역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의 행동에 협력한다.

② 나는 전쟁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행동한다.

전쟁은 침략적, 경쟁적, 경제조직이나 계급, 인종, 민족, 종교, 이데올로기, 차별, 그리고 특히 국가에 대한 잘못된 일반적 관념이 그 원인이 된다. 나는 단순히 전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원인과 싸우고 상호부조의 자치관리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전쟁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나의 노력을 다한다.

③ 나는, 나의 실천행동의 기초를 비폭력직접행동에 둔다.

국가간 전쟁은, 폭력 중 최대의 것이며, 권력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거점인 인민 억압의 장치이기도 하다.

만약 권력과 싸워 민중측이 승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에 의한 것인 한, 반드시 새로운 권력장치를 만들게 될 것이다. 역사는 그러한 방향이 결코 인류에게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곤란하더라도 내가 갈 길은 폭력에 악순환을 단절하는 비폭력 직접행동 이외에는 없다.

이상 세가지 입장을 어길 경우, 그것을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간에 나는 WRI멤버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고, 스스로 제적된다는 것을 승인한다.
그러나, 그런 때도 나는 WRI 지지자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재등록하고, 다시 멤버가 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2) 멤버의 임무

WRI의 참다운 힘은, 자립해서 자기의 책임 하에 행동하는 개인의 자각에 있다. 따라서 개인은 WRI에 소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WRI로서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WRI에 대한 책임, 의무는 자기에 대한 책임, 의무로서 스스로 실천하는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물론, 의무나 활동에 관해서 어떠한 강제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에 전제가 된다.

WRI 멤버로서의 나의 임무는, 첫째로, <전쟁저항운동>, <非戰평화운동>, <반핵.반군대.반기지운동> 및 이런 것과 연관하여 제휴하는 각종의 반권력 운동을 지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데 있다. 그러한 운동은 국가권력과 그 조직일반이 갖는 권력주의적 경향에 의해서 때때로 분열되고, 때로는 대립한다. 그 분열된 간극을 메우기 위한 주변의 운동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WRI가 그 역할로 하는 조직간 정보교류, 공동행동, 분업적 제휴, 상호지원의 관계를 창출하고, 자유연합의 매개체가 되는 데 있다.
둘째로, 군대기피나 전쟁저항자, 나아가 일반적 국가권력과의 투쟁으로 체포된 자의 투옥, 감금, 처형, 추방에 구원의 손길을 뻗어,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실천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또는 이미 있는 구원조직에 참가하고, 구체적, 개별적인 구원활동을 추진한다.
셋째로, 비폭력 직접행동을 실천하고, 발전시키고, 일상생활에서의 힘으로 구체화한다. 그 첫째는, 지금은 거의 힘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비폭력 직접행동을 자각적으로 재정립하

고, 그것과 병행한 연구회, 집회, 트레이닝 세미나, 선전활동을 한다. 나아가서, WRI 선전지 『비폭력 직접행동』 등을 배포하고, 가능하면 새로운 멤버와 지지자를 만든다.
넷째로, WRI - Japan의 특징은, 첫째 '非戰', '반권력'과 '개인의 결의 - 책임', 둘째, '운동의 연합', '저항자와 서로 연대와 구원활동', 셋째, '비폭력 직접행동', 넷째, '국제연대'이다. WRI의 작은 활동은 각국 WRI와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에 의해서 연결되고, 서로 힘이되는 대로 세계적인 활동에 일부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확신은 나에게 각국 WRI의 활동이나 호소에 관심을 두고, 자기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전개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구제적인 문제제기나 행동은 뉴스레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다.

3) 등록

'WRI 선언'과 '멤버의 임무'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신을 WRI라고 했을 때, 당신은 WRI의 멤버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은, 어디까지나 자기확인의 사무적 절차의 의미밖에 없다. 단, 자기의 결의만으로는 기타 WRI멤버와의 교류나 공동관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것과 WRI - International과는 일본측을 통한 관계가 요구된다는 등의 이유에서 등록을 하게 된다. 물론, 등록에 의해서 당신은 WRI 일본측에 대해서 스스로가 부과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① WRI 멤버는 다음 형식의 등록용지에 서명하여, 사무소로 보낸다.
벨기에[7]의 국제사무소로 보내는 일년회비 천엔을 포함하는 일년회비 삼천엔(이상)을 첨부. 단, 현재 실업중인 무수입자, 저수입자는 면제 또는 자기가 판단한 정도의 금액도 무관하다.
② 직업 등 사정으로 멤버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지지자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의지를 표명한 사람 및 1년회비 천엔 이상의 기부를 한 사람을 지지자로 한다. 멤버와 지지자의 구분은 개인의 결의와 행위에 속하며, 처우는 똑같다. 단, 명부는 공개하지 않는다.
③ 사무소는, WRI 일본의 총회가 개최되고, 멤버의 총의로 운영방침이 결정되기까지, WRI 오오사카와 자발적인 회원멤버의 책임하에서 유지, 운영한다. 또, WRI 국제사무소에 분담금, 뉴스레터, 선전지의 발행비, 통신연락 등의 사무소 비용은 회비와 기부금, 뉴스레터 판매금 등으로 운영한다.

7) 2003년 현재, 영국임.

※ 참고, 등록 용지 형식

확인 등록(양식)
주소 성명 직업
나는 <WRI선언> 및 <멤버의 임무>를 자기의 것으로 하고, 승인,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서명하고 등록한다. 년 월 일 WRI·일본·사무소 귀중
(간단한 자기소개 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역사

일본에서 WRI는 전시(1차대전) 중 회원 이시가 오사무씨의 병역거부가 알려지고 있지만, 1953년 일본아나키스트 연맹 국제부 책임자였던 고(故) 야마가 타이지(山鹿 泰治)에 의해서, WRI-Japan이 창설되고, 원수폭(原水爆)금지운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인도에서 열린 제 10회 국제회의(1960년)에는 대표가 참가했다. 야마가 타이지 사후(死後) 엔도씨, 무까이(向井)씨로 간사가 인계되고, 기관지 『전쟁저항자』를 15호까지 출간하다가 중단. 그리고, 베트남 반전, 70년 안보투쟁을 겪고, 74년 반핵 요트 프리(Free)호의 일본 방문 등에 의해서 재조직과 활동이 다시 시작됐다. 기관지 『비폭력 직접행동』이 10호까지 발행되었으며, 현재 「WRI 뉴스레터(월간)」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제에 대한 단상[8)]

야스하라 카즈오(安原 和雄)[9)]

— 군사력에 의존한 석유낭비 경제에 미래는 없다.
이제는 '작은 나라의 커다란 지혜'에서 배워야 한다.

8) 『週刊 金曜日』 (No 445. 2003. 1. 31)에서 번역함.
9) 일본 아시까가(足利) 공업대학 경제학 담당교수.

‘일미(日米)[10]공동운명체’를 시끄럽게 떠들어대던 것은 1980년 중반 나까소네(中曾根) 수상 정권이었다. TV에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최신 함대방공용 미사일 호위함) 출항광경을 보면서 그 때를 회상했다.

인도양으로 이지스함을 보내는 것은, 미국이 이라크공격을 시작하면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라크공격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추방하고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부시대통령 생각의 이면에는 석유문제가 있다. 그것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 「주요석유산출국의 석유매장량과 채굴 가능연수」(1999년, 매장량의 단위 = 100만 ㎘)를 소개한다.

	석유매장량	채굴가능연수
사우디아라비아	41,499	96.0
이라크	17,888	116.2
이란	14,262	71.0
러시아	7,723	22.5
중국	3,816	20.5
미국	3,344	9.6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라크의 석유매장량이 세계 제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채굴가능연수가 현재의 채굴베이스를 전제로 계산하면 세계에서 제일 길고 100년을 넘는다. 한편 미국의 채굴가능연수는 고작 10년 밖에 안된다.

석유에 관해서 또 한가지. 부시 정권이 탄생된 직후에 미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또 의정서(97년 12월 채택)에서 일방적으로 이탈했다. 교또 의정서 정신을 지키는 일은 석유낭비경제의 억제와 연관된다. 이에 반해서 교또 의정서를 거부한 것은 미국식 석유낭비경제를 앞으로도 지속시키려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석유를 확보하고 지배할 뜻이 있음을 세계에 선언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0) 일본에서는 미국(米國)이라고 표현.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석유매장량과 채굴가능연수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는 이라크를 손에 넣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뜻대로 안되는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군사력으로 축출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군사력에 의한 석유확보와 석유낭비경제의 유지라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낡은 생각이라고 하겠다.

일본이 이라크공격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에서 이지스함을 파견한 것은 일미운명공동체의 파트너로서 (이러한 시나리오 실현에) 한팔 걷고 나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이 일본은 석유의 90% 가까이를 중동 제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력을 휘둘러대고 석유낭비경제를 유지하는 노선은 역사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큰 길에 걸맞는 지구환경의 보전, 석유낭비경제로부터의 이탈과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의 확립 밖에는 없다. 이러한 세가지 큰 길에서 벗어난 미국은 멀지 않아 세계에서 더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고립을 면하려 한다면 이제야말로 소국(小國)에서 배워야 할 때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나는 새해 벽두에 ‘코스타리카에서 배우고 평화를 만드는 모임’의 방문단으로 현지를 방문하고 저널리스트들과 얘기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라크 공격과 일본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그들은 “일본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것은 일미군사동맹이 존재하더라도 미국에 추종하지 않는 평화노선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코스타리카는 1949년, 헌법개정으로 군대제도를 폐지하고 철저한 평화교육과 자연환경의 보전, 다시 말하면 석유낭비경제를 벗어나는 정책을 위해서 온 나라가 싸웠다는 실적을 갖고 있다. ‘작은 나라의 커다란 지혜’라고 하겠다. 여기서 일본이 재생할 수 있는 힌트를 찾을 수 없을까. 21세기의 불행한 전쟁시대에 세계를 생각한다.

냉철한 광기가 빚어내는 신제국 아메리카[11)]

쓰꾸시 테쓰야(筑紫 哲也)[12)]

제 2차대전 후 오랫동안 계속된 동서냉전에 종지부를 찍는 미소수뇌회담 취재차 말타섬에 갔던 나는, 돌을 깔아놓은 오래된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겨우 우울한 시대가 끝나가는가 하는 안도감과 조그만 해방감에 젖었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냉전 후 세계의 윤곽이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결코 유쾌한 그림이 아니다. 냉전시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지만 그렇다. '미국 대 기타 세계'가 기본틀이다. 미국이 시작하는 이라크전쟁만 해도 팔을 걷어붙이고 덤벼드는 것은 미국뿐인데 그런 미국에 얼마나 빌붙는가 정도의 차이로 기타 국가들을 가릴 수 있다.

9.11직후 부시대통령은 세계를 향해서 "테러리스트 편을 들래, 미국 편을 들래"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윽박질렀다. 지금 생각하면 '테러리스트'는 하나의 문장 작법상 기교에 불과했다. 그가 강요한 것은 "미국 편을 들래, 미국에 반항할래"였던 것이다.

"이건 새로운 전쟁"이라고 부시는 말했지만 전쟁에는 새것도 헌 것도 없다. 굳이 말한다면 전쟁은 그 자체가 헌 것이다.

이제 생겨나는 것은 기타 세계를 초월하는 힘을 갖는 '신제국'이다. '제국'이라는 형태 그 자체가 새롭다는 것이 아니다. 부시의 신제국은 '불량국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이다. 부시가 높이 치켜든 깃발처럼 단순한 목적을 갖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 자신이 밝힌 '전후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

후세인이 제거된 후의 이라크에 민주국가가 형성될 때까지 미국은 점령을 계속한다고 한다. 점령기간은 상황여하에 달렸지만 1년 반에서 7 ~ 8년이라고 한다. "세계 역사상 드물게 있었던 성공"이었던 일본점령을 참고로 한다지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지 않더라도, 자명한 것은 그 기간동안 미국군대는 이라크에 주둔하면서 기지를 구축한다고 한다.

---

11) 『週刊 金曜日』 (No 446. 2003. 2. 7)에서 번역함.
12) 『週刊 金曜日』 편집위원.

세계 제 2위의 산유국을 차지하는 이른바 석유이권을 지적하는 소리가 많고 그것도 하나의 요소이겠지만 그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 그 곳 이라크에 미국이 눌러 앉아버리는 지정학적 의미이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야말로 일목요연하다.

이라크는 중동의 ‘키스톤(Key Stone)’ 다시 말해서 태평양의 오끼나와가 아닌가. 직접적인 지정학적 의미는 두가지가 있다. 그곳에 군사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눈을 부릅뜨고 중동 각국을 위협할 수 있다. 테러리스트를 돕거나 숨기고 있다고 생각되면 즉각 그곳으로 출격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민주국가’를 만들어서 주변의 각국에 정치적 충격을 주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좋은 예가 되는데,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포함해서 전제국가가 많다. 이런 국내모순의 돌파구로 반미테러로 나서는 경향이 있다고 적어도 미국은 보고 있다(9.11의 범인 19명중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여권으로 입국했다).

당연히 중동세계는 불안정하고 격동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미국주도로 재편성하는 데는 그게 오히려 미국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도 냉전 후 미국의 ‘신보수주의자(Neo-Con)’들이 구상하고 현정권의 중추적인 인물들이 계승한 ‘신세계질서’ 그림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라크전쟁에 난색을 표명한 프랑스와 독일을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낡아버린 유럽’이라고 매도했다. 왜 낡았는가 하면 이제부터 그들이 구축할 ‘신질서’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한 나라에게 보여주는 본보기로 이라크공격의 의미가 있다. 후세인에 대해서보다 미국에 동조,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의미가 더 클지 모른다.

이것은 ‘냉철한 광기’에 지배된 그림인데, 그게 잘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라크에 출병하는 미군병사의 구성명세서[13)]

혼다 카쓰이찌(本田 勝一)[14)]

부시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미군 병사에게 말하겠다. 아메리카국민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중대한 결단이다. 기술이 진보되어도 전쟁의 고통은 변하지 않는다. 어떠한 승리에도 슬픔이 뒤따른다. …… 그리고 반드시 닥쳐오는 애도의 날을 두려워한다.”

위에서 말한 ‘전쟁의 고통’이나 ‘애도’의 대상에, 살해당하는 이라크민중은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 부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 대통령 워싱턴 이래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모두 하나같이 똑같았다. 오늘의 미국동부 밖에는 미국이 아니었던 당시에 워싱턴이 알레게니 산맥을 넘어서 선주민족(이른바 인디언)의 마이애미 연합을 침략하기 시작했을 때, 부녀자를 포함한 모든 민중은 학살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200여년이 지난 지금 하와이든 필리핀이든 일본이든 조선이든 베트남이든 또 12년전의 이라크든 침략당하는 민중에게 단 한번도 애도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렇다면 자기나라 미국의 병사들에게는 진짜 마음으로부터 ‘애도’하고 있는가.

아니다. 최전방에 배치된 미군병사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 명백해진다. 장기간에 걸친 베트남전쟁에서, 워싱턴 이래 계속된 미국의 침략전쟁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측과 베트남군측 쌍방의 최전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배치되었는가 나는 종군기자로 직접 살펴보았다.

조선전쟁 당시 미군과 싸운 중국은, 그들의 수령 모택동의 두 아들이 거기서 모두 전사했다. 그러나 미국의 ‘수령’인 대통령의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이런 것도 최전방의 미군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합주국 미국은 어떤 청년들을 최전방에 배치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표면상으로 보면 기회균등이다. 베트남전쟁 당시는 징병제든 지원병제도든 그것은 ‘민주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첫째 압도적으로 많은 빈곤층 흑인병사를 보면 거의 모두가 군대에 가게 됨으로써, 이러저러한 특전이 주어져서 그것이 매력이 되어 전쟁터에 나

---

13) 『週刊 金曜日』(No. 446, 2003. 2. 7)에서 번역함.
14) 『週刊金曜日』 편집위원.

갔다. 위험한 장소에 출격할수록 공을 세울 기회(따라서 특전의 기회)도 많다. 또 흑인병사는 교육도 낮아서 후방근무를 위한 기술도 배우지 못했다. 최전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둘째로, 미 합주국은 이민의 나라이다. 지금도 해마다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을 찾는다. 그들이 아메리카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제도상으로나 사회일반적으로나 전쟁에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이민자일수록 전쟁에 나가게 된다.

미국병사의 구성 '명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부시에게는 '애도' 운운하고 입만 가지고 떠벌릴 뿐이다. 그러한 증거는 12년전의 이라크전쟁에서 스스로가 우라늄탄 방사능에 몸을 내맡겼던 대량의 미군병사들이 워싱턴정권에 의해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작년에『金曜日』지면에서 나의 이라크르뽀를 읽은 독자들이 아는 바 그대로다. 그리고, 지금 또 대량의 '그렇고 그런 미군 병사들'이 이라크에 투입되고 있다.

인디언전쟁과 같은 이라크전쟁[15)]

- 400년 동안 침략을 이어 온 아메리카 -

후지나가 시게루(藤永 茂)[16)]

부시의 아메리카 합주국(合州國)은 왜 이라크침략을 강행하는가.
눈앞의 정세에 사로잡히지 말고, 건국이래 합주국의 일관된 체질에 눈을 돌리자.

오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오사마 빈 라덴도, 사담 후세인도, 김정일도 아니다. 조지 부시이다. TV에서 이 사람을 보면 몸서리가 쳐지면서 동시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은 심정에 빠진다. 이라크의 몇십만 이상의 무고한 민중이 죽어가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 것만도 아니다. 이대로 놔두면, 인류전체가, 지구전체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부시를 고어로 바꾼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다.

그러나, 진짜로 문제는 부시가 아니다. 이 사람이 걸터 앉아있는 아메리카 합주국이라는 시스템이다. 이것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면 안된다. 최근에 부시의 실언을 가지고 야유를 퍼부어서 기분풀이를 하는 경향이 있다. 확실히, 이 사람의 인간적 자질에는 우스꽝스러울 만큼 저열한 면도 있지만 부시를 고어로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카터를 재선시킨다고 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자유와 평화의 민주주의 국가 아메리카는 본래 건전한 국가인데, 부시정권이 일시적으로 상궤(常軌)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위험한 잘못은 없다. 오늘의 아메리카의 작태가 아메리카의 상궤이기 때문이다.

“9.11을 경계로 해서 아메리카는 변했다”든가 “아메리카는 다시 9.11 이전의 아메리카가 될 수 없다” 등등 거의 모든 아메리카인은 바보처럼 되풀이한다. 또, 그렇게 믿는다. 아메리카는 건국이래 자기 나라의 영토 밖에서 타국의 일반주민을 줄기차게 살육하는 일을 계속해왔

---

15) 『月刊 あれこれ』(2003년 4월, 창간호)에서 번역.

16) 『아메리카 인디언 비사(アメリカインディン悲史)』(1974년)의 저자. 글 중에서 아메리카 합주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일컬음. 합중(合衆) ― 민중이 합치된 나라가 아니라 문자그대로 주(State)가 합쳐진 나라라는 뜻(역주).

다.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도 군사목표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미국내의 일반 주민은 상처입지 않는다는 기록은 2000년 9월 11일까지 유지되었다. 아메리카 건국이래의 평안(平安)이 깨지고, 처음으로 자기나라에서 3,000여명의 일반주민이 사망한 것은 실로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9.11 전과 후에도 아메리카의 본성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건국 이래라기보다 메이플라워(May Flower)호 이후의 400년 동안 끝없는 타국침략의 전통적 체질은 일관해서, 변하기는커녕 9.11 이후에는 그러한 본성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전쟁에서 본 아메리카의 타국침략의 전통적 체질

이렇듯 위험한 일관성에 대해서 눈을 감고 외면하려는 아메리카인의, 또한 역사적으로 일관된., 자기기만성을 나에게 결정적으로 가르쳐준 것은 베트남전쟁중의 '솜미학살' 사건이다. 1968년 3월 16일 오전 8시, 남베트남의 솜미마을 가까이에 있는 볏논에 착륙한 대형 헬리콥터에서 내린 약 80명의 아메리카병사들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총인구 약 700명중 450명을 학살했다. 거의 모두가 노인, 부녀자, 어린이들이고 베트남군인은 없었다. 당시 아메리카군 발표에 의하면, 베트남군인 사망 128명, 아메리카군 피해 제로의 전과로, 당시의 아메리카군 사령관의 칭찬사가 주어졌다. 그에 대한 진상이 아메리카 국민들에게 전달된 것은 20개월이 지난 1969년 11월이었다. 뉴스를 접하고 아메리카군인이 그런 것을 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시민의 기본적 반응이었다.

"독일군인이나 일본군이 했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메리카군인의 행위라면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라든가 "이러한 선량한 젊은이들이야말로, 전쟁의 희생자이며 아메리카 역사상 처음 있는 더러운 전쟁의 희생자이다"라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러나 솜미는 아메리카 역사에서 홀로 돌출된 특이한 사건은 결코 아니다. 400년이라는 먹으로 굵게 쓴 전통 속에 자리잡고 있는 사건이다. 1901년의 루손도(필리핀), 1890년의 운디드니, 1864년의 샌드크리크, 1846년의 멕시코전쟁 등등에서 아메리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아메리카인은 알아야만 하고 잊어서도 안될 일이지만, 그들은 자기나라의 오욕의 역사에는 놀랄 만큼 무지하고, 또 비록 알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그것을 피한다든가, 적극적으로 감추려고 한다. 때문에 '솜미학살'에 대해서도 무지와 기만에서 새삼스럽게 놀란 척 한 것일 뿐이다.

체로키족 말살의 비극, '폭력으로 손에 넣은' 아메리카

메이플라워호 이래의 북미 선주민의 길고 긴 고난의 역사중에서, 체로키족의 비극은 참으로 유니크(unique)한 것이다. 다른 선주민 부족은 백인의 침입으로 신의를 배반당하고, 쫓겨다니다가 어쩔수없이 무력반항을 시도하다가 백인의 압도적인 폭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말살되었다. 그런데, 체로키네이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 백인들이 선주민을 말살하는 '정당한 이유'로 지적한 인디언의 야만성을 모두 없앰으로써 필사적으로 살아남고자 했던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체로키네이션도 똑같이 말살되고 말았던 것이다. 백인들에게는 극악무도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체로키족은 아파라챠산맥의 남단부에 살고 있었는데, 아메리카건국의 아버지 제퍼슨의 루이지애나 구입성공(1803년) 후, 점점 더 강하게 세력을 서부로 확대하는 '이웃나라' 아메리카를 혐오해서, 그 일부는 오늘의 알라바마주 근처까지 이주했다. 체로키네이션의 지도자 릿지는 크리크인디언이 반미 무력저항으로 궐기했을 때, 그 진압에 협력해 달라는 앤드류 잭슨의 요구를 받고 "지금 여기서 아메리카측에 붙어서 우호관계를 맺어두면 장차 부당한 이유로 체로키국민을 압박하지 않겠지"라는 계산으로 잭슨을 도와서 크리크족과 싸웠다. 덕택에 잭슨은 가까스로 반란진압에 성공하고, 이것은 잭슨의 제 7대 대통령당선의 길로 이어졌다. 이라크.이란전쟁에서 아메리카가 이라크를 이용한 상황과 흡사하지 않은가.

아메리카대륙 선주민을 전멸시키면서 그 땅을 빼앗은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메리카라는 나라의 최대의 특징중의 하나는 거대한 위선성(僞善性)에 있다. 타자를 기만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자신을 기만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정당한 이유'를 날조하는 것이다. 백인의 아메리카대륙 침략은 신이 내려준 명백한 사명(manifest destiny)으로 생각하기로 했던 것이다. 잭슨대통령은 그것은 '진보와 문명'의 필연적인 발전에 다름이 아니고, '자유와 문명의 그리스도교의 축복을 받은 몇백만명의 인간들의 영광스러운 서부진출 앞에, 숲에 숨어있는 몇천명의 야만인들은 당연히 그 숲을, 개울을, 평원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신이 정한 운명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 야만인들이 스스로가 나서서 야만인이기를 그만둔다면 어떻게 하는가. 프론티어의 우락부락한 백인들보다도 신앙심이 두터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어 더욱 근면한 농민이 되고, 더욱 높은 교육을 받고 민주주의적인 국민의회를 갖고 더욱 법에 순종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신해버린다면, 백인들의 선주민 말살의 '정당한 이유'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겠는가. 체로키들은 여기다가 모든 희망을 두고 40년 남짓한 단기간에 기적과도 같은 자기개혁을 완수했던 것이다.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훨씬 능가하는 대개혁이었다. 백인이 강제

한 조건 모두에 순응한 것이다. 이러한 체로키의 대변신은 백인의 거대한 위선과 자기기만에 대해서 통렬한, 아이러니컬한 앙갚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진실로, 그들은 사랑하는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활로를 거기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체로키의 죽음을 부른 오산이었다. “가지고 싶으면 폭력으로 그것을 빼앗아라”, 이것이 아메리카 400년 불멸의 전통이며, 유일한 이론이다. 아메리카가 욕심낸 것은 체로키의 토지였으며, 체로키국가의 민주주의 따위는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체로키네이션 말살의 비극은 1838년 겨울에 절정에 도달한다. 바로 ‘눈물의 발자국(The Trail of Tears)’으로 기억되는 체로키족의 강제이주사건이다. 1300Km 행진, 도중의 사망자 4,000명, 이것과 비교하면 ‘바타안의 죽음의 행진’ 따위는 새발의 피라 아니할 수 없다.[17)]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믿음

2003년 2월 16일, 아메리카 국내에서 대이라크 전쟁반대의 대규모 데모가 전개되었다. 끝이 보이지 않은 플랭카드 행렬에서 반전의 강력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재(在)북미생활 35년의 체험에 비춰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단언한다. 반전집회에 참가한 아메리카인의 99%는 우리나라 아메리카가 사실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히로시마, 나가사끼의 전쟁범죄”라고 크게 쓴 플랭카드를 들고 사흘만 백악관 근처를 왔다갔다 해보라. 미국에서 밥을 못먹게 되는 것은 틀림없이 따논 당상이다.

이라크에서는 백수십명의 사찰관이 눈을 부릅뜨고 나라 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녔지만, 그럴만한 것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결론짓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결론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처음부터 아메리카의 속셈은 정해져 있었다. 아무리 순종하는 뜻을 보여주어도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라크의 일반주민들의 뺨에서는 드디어 ‘눈물의 발자국’에서 체로키가 흘린 눈물과 같은 눈물이 흐르고야 말 것이다. 그것이 통한의 마음을 담은 나의 예언이다.

17) 자세한 것은, 필자의 저서 『아메리카 인디언 비사』(1974년)를 참조.

프랑스 라르자크에서 온 신출귀몰하는 농민 조제 보베[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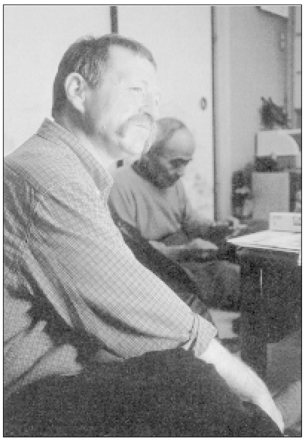
히라이 야스시(平井 康嗣)[19]

국제적인 반세계화 운동가로 알려진 조제 보베가 2002년 가을에 일본 각지를 찾았다. 치바현 나리따(공항이 있는 곳)와 토오꼬오에서 그를 쫓아 다니며 그의 사상에 접근했다.

프랑스 라르자크에서 온 국제적인 운동가 조제보베가 나리따 공항에 내린 것은 작년 10월 말의 일이다. 그는 공항 가까이에 있는 「키노네(木の根) 민박집(Pension)」에 얼굴을 내밀었다. 그곳에서 현지 농민들이 술과 음식을 준비해서 환영회를 열었다.

반세계화의 상징

1999년 12월 미국의 시애틀에서 궁지에 내몰린 WTO(세계무역기구)의 각료회의, 2001년 7월의 이탈리아 제노바 서미트(주요국 수뇌회의) 등에서는 세계화 – 효율이나 이익을 추구하여 전세계에 규제를 강요하는 소수 선진국의 행동 – 에 반대하는 운동이 크게 고조되었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풍성하게 콧수염을 기른 서양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지금 반세계화의 기수가 된 프랑스 농민연맹 공동대표 조제 보베(49세)이다.





▲ 2002년 3월 31일 비폭력반대네트워크 「국제연대운동」(ISM)과 함께 인간방패로 갔다. 이스라엘군에 포위된 아라파트 의장을 방문(『週刊 金曜日』에서).
◀ 시바야마의 앗따상 집을 방문한 보베(상동)

18) 『週刊 金曜日』 No. 444(2003. 1. 24)에서 번역함. 일부는 경칭을 생략하였음.
19) 『週刊 金曜日』 편집부(編輯部).

그는 작년 1월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의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했는가 하면 3월에는 평화를 호소하려고 이스라엘군에게 포위당한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 의장을 만나러 간 신출귀몰하는 운동가이다. 그러한 그를 가장 유명하게 한 것은, 주모자로서 미국의 대기업 햄버거 체인 맥도널드의 점포를 해체한 사건일 것이다.

1999년 유럽연합(EU)은 성장호르몬으로 키운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했고 미국은 이러한 금지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WTO는 EU의 조치를 협정위반이라면서 미국에 1억 6,8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회수방법은 미국에 일임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로크포르치즈 등 100개 품목 수입에 100%라는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복했다.

고급 푸른 곰팡이 치즈인 로크포르는 보베의 본거지 라르자크 고원에 있어서는 생명줄이나 다름 없었다. "유럽의 농민은 격감했다. 식량주권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보베의 지도하에 농민동맹이나 젖소생산자 등은 대응책을 강구하고 미오시에 있는 맥도널드 점포의 해체를 결정했다. 맥도널드 햄버거가 공업적 농업의 산물이며 동시에 세계화의 상징인 다국적 기업이라는 데서 표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 온 보베의 복장은 어느 나라에서나 살 수 있는 팀버랜드의 점퍼에 에드윈의 블루진이었다. 그는 빈곤국가에서는 물보다 안전하다면서 코카콜라도 잘 마신다.

3일전에 경찰이나 보도기관에 예고했던 맥도널드의 해체는 축제처럼, 피크닉처럼 열렸다고 한다. 해체는 충동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맥도널드 해체의 뉴스는 전세계에 전해지고 그는 예상외로 세계적 유명인사가 되었다. '파괴꾼'이라고 비판받으면서도 프랑스 국내에서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좌익에서부터 자국의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보수층까지 지지했고 작년 프랑스 대통령에 출마하는 게 아닌가 할만큼 소문이 나고 인기를 얻었다(그렇지만, 그는 "내 운동은 권력을 쟁취하는 투쟁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방법을 바꾸는 운동이다"라면서 정치운동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왜 공항건설 반대투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나리따에 왔는가.

81년의 라르자크

라르자크의 농민들은 1981년 8월에 오가와씨, 가세씨, 이시이씨 등 일본의 산리즈까(三里塚) 시바야마 연합 반대 농민들 6명을 반전국제집회에 초청했다. 라르자크는 파리의 남쪽 약 700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돌멩이 투성이의 석회층 지대로 동굴이 많아 로크포르를 만드는

데 조건이 맞는다.

라르자크에는 군기지가 있고 71년에는 기지확장계획이 발표되어 농지매수를 적극적으로 했다. 농민들은 “대포가 아니라 양(羊)이다”, “이 땅에서 살면서 일하고 싶다”라면서 땅을 사들이고 저항했다. 토지문제로 싸우는 농민이라는 의미에서 산리즈까(三里塚)나 시바야마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 게 아니다. 이용권을 주장했다. 토지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보베는 16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하고 다음해 75년에 라르자크에서 양치기 농민이 되었다. 현지에서는 격렬한 기지반대투쟁이 전개되고 10년 후 81년에는 기지확장계획은 중지하게 되었다.

불복종 저항운동을 이어가던 라르자크의 주민들은 토지에 뿌리를 박고 투쟁을 이어가는 나리따의 농민들에게 배우려고 했다(이때 독일 경찰은 나리따의 기동대를 불러다가 데모대책을 세웠다). 보베와 나리따의 농민들은 서로 그 때 만났고 사무국장 가세가 이번에는 산리즈까에서 국제교류를 갖자고 맹세했다. 그리고 21년이 지나 이번에는 보베가 일본으로 왔다. 초청한 것은 ‘아탁 재팬(ATTAC Japan)’이다. 세계화하는 금융거래에 과세를 주장하는 NGO의 일본 지부가 그를 초청했으며 거기에는 지금까지 나리따공항 반대투쟁의 지원자들이 있었다.

산리즈까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일본에 온 다음날, 필자는 보베가 탄 자동차에 동승해서 함께 현지를 견학했다. 그는 우선 ‘요꼬보리(横堀)의 대철탑’에 올라가서 공항을 전망했다. 공항관제탑을 바라보면서 “저건 알고 있지. 파괴했었잖아. 그 때 엄청난 감명을 받았지.”하고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1978년 관제탑 점거뉴스는 프랑스에 있던 보베를 격려했다고 한다.

계속해서 시바야마에 있는 앗따 테루 부처를 방문했다.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투쟁’이라는 앗따씨는 농지사수를 계속한 반대동맹 앗따파의 우두머리다. 초심을 관철해서 토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소수파 사람이다. 앗따씨의 아들 마꼬또씨가 21년 전에 라르자크에서 보베와 만난 인연이 있었다.

그 후 토오호오(東峰)의 이시이 쓰네시, 시마무라 아끼하루씨의 농장을 둘러보았다. ‘농민다운 농업’을 지향하는 제 2세대들도 자라고 있다. 시마무라씨에게는 “이 비료에는 GMO(유전자조작작물)가 섞이지 않았는가”하는 등의 질문을 하면서 농장을 견학했다. 그는 지금 농민동맹의 위원장 일이 바빠서 돼지나 양은 아르바이트들에게 맡겨 놓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인도

의 유기농업을 지원하거나, 팔레스타인에서 올리브를 수확한다"고 했다.

나리따공항은 '월드컵개최'를 명목으로 작년 4월 18일 두 번째 평행활주로를 개업했다. 토오호오부락에 있는 반대농가의 토지를 피해서 만든 짧은 활주로로는 점보기가 이착륙 할 수 없다고 한다.

필자가 동행하는 동안, 5분마다 머리 위 40미터를 저공으로 날아다니는 여객기의 폭음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활주로가 있었다. 밭의 칸또오로옴층의 흙은 가볍기 때문에 날아가기 쉽다. 배기가스도 심했다. 지바현 경찰이 항상 감시하며 따라다닌다. 일상시 전화도 도청당한다. 보베는 "프랑스에서도 항상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반대투쟁에서는 사망자도 나왔다. 더구나 밭흙을 좋게 하는 데는 20년이 걸린다. 이 땅에서 나간다는 것은 농민을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베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일하자"는 집회도 여는 등 '뿌리'가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토오꼬오에서 그의 강연은 대만원으로 성황을 이루었고 유기농산물이나 환경 등에 관심을 쏟는 젊은이들도 보였다. 이처럼 평화와 농민투쟁에 뿌리를 내린 그의 삶의 방식과 나리따의 농민을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거대한 국제공항은 세계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강연에서 보베는 "프랑스의 운동이 활기에 차 있는 것은 왜 그런가"하는 질문을 받고 "운동이란 서로가 배우는 것이다. 우리들도 산리즈까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여러분은 잊고 있다"라고 했다. "'세계화'에 대한 투쟁도 산리즈까의 투쟁도 같은 것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었다.

농민봉기는 프랑스에 있다

보베는 작년 6월 19일 파리형무소에 맥도널드 해체의 죄로 출두하고 3개월 수감당했다. 이 때 보베는 농업용 트랙터를 타고 하루 걸려서 동아리들과 대행진을 하면서 재판소에 출두했다. 농업대국 프랑스에서 농민의 쇠똥을 재판소 앞에 뿌리고 트랙터로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동이 빈번히 있다. 농민연맹은 일찍이 에펠탑 밑에 양떼를 풀어놓은 일도 있다.



▲ 농민으로서의 아이덴터티, 2002년 6월 19일,
트랙터를 타고, 대행진(大行進)으로 형무소에 출두(『週刊 金曜日』에서)

11월 1일 보베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귀국길에 올랐다. 작년 8월 26일 국제농업개발연구소가 남프랑스 몽테리말에서 경영하는 농장을 낫과 도끼를 손에 든 인도인농민 100여명이 급습했다. 실험장에 심어 놓은 GMO벼를 뽑아 버렸던 것이다.

97년에 프랑스정부가 GMO재배를 인정하자 다국적기업이 진출하게 되었다.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쳐서 보베의 농민연맹은 다국적기업의 GMO옥수수, 콩, 유채 등의 실험장을 모두 파괴했다고 한다. “GMO는 다른 형태의 농업과의 공존을 불허하는 전체주의적 농업이다”. 그러나 역시 보베도 현인회의(賢人會議)를 열었다. “결국 해답은 잘 얘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선 승리라는 결론이 났다.”

11월 19일 그에게 징역 14개월의 판결이 났다. 보베는 “인도에는 몇차례 갔고 (국제적인 농민네트워크) 뷔아 깜빠시아(농민에의 길)도 있고 농민들과도 협력관계가 있다. 앞으로 타이나 인도네시아 한국에도 가고 싶다”고 했다. 그곳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산리즈까’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명의 민주주의[20]

반다나 쉬바(Vandana Shiva)[21]

세계화는 인류가 다음에 맞이할 대약진을 약속하는 것이었을 터이다. 공산주의나 국가자본주의의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통제경제에 대신해서, 제반의 규제를 철폐한 자유로운 시장질서가 선택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에 대신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그 자체의 존재양식을 결정짓는 역할이 시장에 주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지배하는 10년을 지나서 세계화는 대약진은 고사하고 사람들에게 커다란 환멸을 가져다 주고 있다. 민주주의는 공동화되고 사람들의 삶은 계속 파괴되고 있다. 파산에 내몰리는 소규모농가나 중소기업은 끝이 없다.

더욱 아이러니컬한 것은 무역의 자유화나 세계화를 추진했던 글로벌기업 중에는 스스로 도산한 것도 있다. 그 하나 엔론사는 세계화의 "스타급 프로젝트"라는 간판을 내걸고 시끌벅적 선전하고 인도시장에 들어왔지만 경영파탄에 스캔들에만 휘말리고 말았다. WTO(세계무역기구)에서 EU 대 USA는 쟁의를 일으켰고 유럽에 이른바 바나나전쟁을 도발한 치커타사도 파산신청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동남아에서 시작되었고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통화위기야말로 경제의 세계화가 가져온 위험한 성격을 드러낸 것이다.

1999년 연말에 시애틀에서 일어난 WTO에 대한 대규모 항의데모는 세계화에 대항하는 새로운 민중운동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름도 없는 일반시민들이 WTO를 결렬시킴으로써 자기들이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이러한 시민운동에 대해서 정부나 기업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황당하게도 다음 WTO각료회의의 개최지를 카타르의 도하로 결정했으니, 지리적 조건으로 몇천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서 항의활동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

20) 반다나 쉬바의 글이 여섯 번으로 나뉘어서 「週刊 金曜日」에 실렸는데 이것은 마지막회 글(『週刊 金曜日』 No. 444(2003. 1. 24))을 번역한 것임.
21) 반다나 쉬바는 1952년 인도에서 출생, 82년 「과학기술 자연자원 정책 연구재단」을 인도에서 설립 주재하다. 환경보전이나 여성의 인권운동에 나선 실천가이며 개발, 농업, 세계화 등 갖가지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오피니언 리더이기도 하다. 얼터너티브(대안적) 노벨상이라고 하는 Right Livelyhood Award을 수상, 저서 다수.

려는 일시적 방편을 썼던 것이다. 그리고 온갖 항의나 이의신청에 “테러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들은 세계화와 더욱더 군국주의화하는 국가에 의해서, 이를테면, 이중으로 된 우리 속에 갇혀 있다. 그러한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위한 자유를 되찾는 일이다. 모든 생물종이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불가분의 자유를 회복하고 재생시키는 것, 이것이 99년 6월에 인도에서 설립된 “생명의 민주주의 운동”의 목표이다.

“생명의 민주주의”는 두가지 연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인류의 자유는 하나의 연계이고 성별, 인종, 종교, 계급, 종에 의해서 차별될 수 없다는 의미의 연속성이다.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이 없는 공정(정의)은 있을 수 없으며 공정이 없으면 평화도 없는 것이다.

예전에 우리들의 생활기반이었던 공동체와 공유지가 세계화경제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생명의 민주주의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 운동은 환경운동이자 빈곤퇴치운동이며, 공유지회복운동이자 평화운동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 지금까지 인도에서 전개되었던 운동의 성과를 이어받고 발전시키는 운동이다. 자원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수호하는 운동이나 경제주권(스와데시), 자치(스와라지), 불복종(사티아그라하)의 3원칙을 내건 자유민권운동이다. 특히, 마하트마 간디가 제창한 이러한 3원칙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생명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 민주주의에 머물지 않는 “지구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세계화 아래에서 민주주의는 숨이 끊어져가고 있다. 세계 모든 곳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정부가 공공연하게 민중을 배신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주의적 헌법이 있는 데서는 그것을 파괴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 축소하는 법을 제정해서 권력과 권위를 더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9.11의 비극은 지금 전세계의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는 구실로 이용되고 있다.

“생명의 민주주의운동”은 모양만 갖춘 “죽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살아있는 민주주의”이다. 정부가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져서 세계화를 추진하는 대기업이라는 폭군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타락한 이상, 민주주의는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은가.

대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는 대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다. 세계화기업에 특권을 부여하고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인 시장을 지배하기 쉬운 룰을 만들어 종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지

역의 소규모 생산자의 생활을 위협하고 영세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생명의 민주주의는 지구상의 생명을 지속하고 모든 생물종과 인류의 자유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자연의 생태적 법칙에 따르는 것을 기능으로 해서 비즈니스가 다른 종이나 사람들에 대한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을 둔다.

권력의 집중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기업적 세계화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산을 통해야만 힘을 발휘한다. 한쪽이 소비주의의 세계화인데 대해서 다른 쪽은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세계화이다.

생명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류와 자연자원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토지와 물을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거기서 주권은 국가가 아니라 공동체에 있다. 공동체는 국가에게, 이를테면, 자원의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위탁하게 된다. 지금까지와 같이 자원이 사적으로 소유되고 통제되는 구조에서 공동체에 의한 공동관리로 전환함에 따라서 국가의 역할도 변한다. 그렇게 하면 지역의 자립이나 입회지(入會地)나 공유지의 재생도 가능하게 되고 토지, 물, 생물다양성의 사유화나 기업에 의한 독점에 저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태학적으로 말하더라도 이러한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구가족의 하나인 우리들 인간은 지구자원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과 서로 나누지 않으면 안된다.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는 인간이 종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그것은 국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국가나 WTO나 대기업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들이 부여받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살 권리이다.

살기 위해서 자원에의 접근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원의 공유와 분배만이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유화와 “둘러싸는 것”은 그러한 권리를 파괴하게 된다. 공유지의 재생은 세계화가 아니라 지방화와 지역주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생명의 민주주의는 우리들의 의식, 생산 시스템, 소비패턴을, 계속해서 빈곤을 낳을 수밖에 없는 세계화시장에서 살려내어 지속가능성과 상호배분의 장인 “지구 코뮤니티”로 바꾸는 운동이다.

세계화시장의 자유에서 지구시민으로서의 자유로, 세계화권력에서 권력의 지역화로, 기업중심의 사회에서 시민중심의 사회로, 생명의 민주주의 운동이 말하려는 것은 단순하게 더 좋은 사회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가 실현되지 않고 우리들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환경정의와 민중운동[22)]

토다 키요시(戸田 清)[23)]

1. 자원환경문제와 사회적 불평등

인간사회와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인간의 수익(이익)과 피해는 하나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대내에서도, 세대간에서도 큰 격차가 있다.(표 1)

표 1. 환경정의에 관련된 여러 과제의 예

	세대내의 정의	세대간의 정의
수익	1인당 자원소비의 남북 격차	자연자원 향수기회의 세대간의 격차
피해	- 유해 폐기물 처분장의 유색인종 저소득층 거주지(미국)나 과소지(일본)로 입지 - 원전의 '과소지(過疎地)'로 입지 - 핵피해자의 아이들과 피폭노동자에 대한 과중 - 공해수출	핵폐기물 관리의 자손에 대한 강제

出典 : 戸田 清(1994) 「環境的公正を求めて」 新曜社, 298 페이지, 표에 가필 (한국어판, 『환경정의를 위하여』 (창작과 비평사, 1996), 285페이지 참고)

공해의 피해가 생물적 약자(태아, 어린이,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와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노동자, 농민 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되풀이해서 지적되어 왔다(庄司. 宮本 1975, 戸田 1995 등). 핵의 군사적 이용과 상업적 이용을 예로 들면, 이익은 정(政)、관(官)、학(學)、군(軍)의 상층부나 엘리트(과학자의 피폭 등 피해도 있다)에 집중되고 피해는 태아, 어린이, 선주민, 일반병사(핵실험 종군병사, 열화우라늄탄 피해차량 처리반 등), 피폭노동자,

---

22) 『생활협동조합연구』 297호(2000년 10월, Review of Consumer Co-Operative Studies, Vol 297)의 특집 「21世紀における社會經濟システムの變化(21세기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시스템의 변화)」에서 「環境正義と民衆運動」을 번역함. 참고문헌은 생략.
23) 나가사끼(長崎)대학 환경과학부 조교수.

과소지(過疎地) 주민 등에 집중된다. 핵공격의 피해는 비교적 평등했는데, 현재도 계속되는 한국인 피폭자 재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제는 평등하지 않았다. 세대간에서 보더라도 미래세대는 핵발전이 가져다주는 '편리한 생활'을 향유하지 못하고, 핵폐기물의 장기관리만이 강제되고 있다. 또 일본에서만 9년간 사용된 식품첨가물 AF2(어육, 햄, 소시지나 값싼 두부의 살균제)의 섭취는 인간의 간암발생률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농촌에서 섭취량이 많아지고 있다.

수익(이익)차원에서 보면 에너지, 종이, 자동차 등 1인당 소비에서 수배내지 수백배에 이르는 거대한 남북격차가 있다(지구의 날 일본 1994, 戸田 1994, 戸田 1999). "세계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선진국이 자원소비에서 80%를 차지한다"는 상황이다. 선진국의 "풍요로운(낭비적인) 생활"은 발전 도상국의 값싼 자원을 대량도입하는 데서 유지되고 있다. 금세기초 미국에서 시작된 "대중소비사회"에 대해서 행정에서뿐만 아니라 NGO나 연구자들까지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見田 1996)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

발전도상국이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원료비용에 내부화하기 위해서 많은 NGO가 버진(Virgin)자원과세[24], 디파지트 제도(Deposit System)[25], 환경세 등의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구조적 폭력

이러한 불평등과 불공정은 구조적 폭력의 문제에서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인도의 평화학자 스가타 다스굽타는 "평화가 아닌 상태(peacelessness)"라는 개념을 제기했다. 발전도상국의 상황은 비록 전쟁이 없다고 하더라도 빈곤, 탄압, 기아, 위생불량, 질병, 실업, 범죄 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평화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신식민지 지배의 유산이거나 신식민지적 지배와 관련이 깊다. 1969년 노르웨이의 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제기했다. 직접적 폭력(전쟁, 살인, 고문, 강간 등)의 극복은 과제로서 자각되기 쉽지만, 구조적 폭력(빈곤, 기아, 언론의 부자유, 유해상품 판매, 원죄다발 등)은 우선 폭력으로서 인식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 폭력이란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이 인위적으로 방해받는다는 것이다. 중세의 역병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은 폭력이 아니지만,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 감염증에 의한 발전도상국의 저소득층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

24) 처녀지(미개척지)의 자원을 채굴할 때 매기는 세금.
25) 미래에 발생할 피해나 영향을 대비하여 미리 돈을 적립하는 제도.

는 것은 폭력이다. 종래의 평화학이 전쟁과 평화를 논해왔던 것을 확장해서 갈퉁은 '폭력과 평화'를 논했다. 직접적 폭력의 부재가 '소극적 평화'이며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의 부재가 '적극적 평화(사회정의)'이다.

법학자 벳카리어는「범죄와 형벌」(1764)에서 사형폐지를 제창하고 철학자 칸트는「영구평화론」(1795)에서 군대폐지를 제창했다. 이들은 국가에 의한 직접적 폭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엥겔스는「영국에 있어서의 노동자계급의 상태」(1845)에서 산업혁명기의 자본주의가 행한 구조적 폭력을 사회적 살인, 상해라고 고발했다.

폭력의 무게를 생각할 때 자연적, 물리적 환경(인공환경을 포함한다)과 사회문화환경(제도나 이데올로기를 포함한다)을 분리할 수가 없다. 현대사회의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 구체적 예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

첫째로 1980년대에 시작되는 발전도상국의 채무위기에 즈음해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채무국에 권고한「구조조정 프로그램(SAP)」의 문제가 있다(北澤.村井編 1995, 워너&샌더즈 1997=1998, 쵸스돕스키 1997=1999). 이것은 통화절하, 보건복지예산 삭감, 공무원 삭감, 민영화, 규제완화, 수출환금작물의 장려에 따르는 자급작물의 삭감, 군사비의 성역화 등에 의해서 저소득층, 어린이, 여성, 자연환경에 데미지를 준다는 지적이 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SAP에 의한 인명의 희생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연간 6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아시아태평양자료센타, 1998). 자연적, 물리적 환경과 사회문화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담배회사의 행동이다. 폐암 등 담배병의 사망자는 세계에서 연간 400만명에 이른다.(WHO의 추정, 朝日新聞社 1999. 8. 17). 그 중에 미국에서 40만명, 일본에서 10만명인데, 미국에서는 간접흡연 담배병의 사망자는 담배병 사망자의 10분의 1로 추정된다(朝日新聞 1999. 11. 24). 말라위 등 열대의 담배재배국에서는 담배잎의 건조가 열대우림파괴의 최대원인이다. 토양을 피폐시키는 작물이며, 담배연기중에 방사능(Polonium 210)[26]이 문제가 되는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담배자본과 일부행정(일본에서는 재무성), 어용학자이며 끽연자는 침략전쟁에 있어서의 일반병사와 같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피해자"이다. 그러나 자각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특히, 환경, 평화, 인권, 좌익 등에 동참하는 사람의 경우) 그런 의미에서 코프(Coop)[27] 토오꼬오의 총대회에서 담배판매 계속에

26) 산소족 원소의 하나. 원소기호 Po, 원자번호 84. 동위체는 어느 쪽도 방사성. 1898년 프랑스 퀴리 부부가 질량 수 210의 동위체를 라듐과 함께 발견.
27) 큰 규모의 일본 생협.

대한 시비가 토의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셋째로 유업(乳業)자본의 선전에 영향을 받아 모유를 가루우유로 바꿨기 때문에 사망한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 어린이는, 이것도 유니세프의 추정에 의하면 연간 1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워너&샌더즈 1997 = 1998).

넷째로 UN의 이라크 경제제재로 100만명 이상(어린이 50만명 이상)이 희생당했으며 어린이와 고령자의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다. 후세인에게도 제재를 초래한 책임이 있지만 제재를 실행하는 측의 책임은 더욱 크다. 메가데스(megadeath, 100만단위의 사망)라는 것은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만든 말이지만, 경제제재는 비전쟁상태에서 완만한 메가데스를 일으키고 있다. 군수자본이 담배자본과 나란히 "죽음의 상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원자력개발(핵공격은 직접적 폭력)이나 농약이나 의약품판매의 상당부분(특히, 도상국에서의 남용)도 구조적 폭력이다. 그리고, 전쟁, 군대에 의한 탄압, 기지범죄가 직접적 폭력인데 대해서 무기판매, 군대의 존재, 기지오염은 구조적 폭력이다.

3. 자본주의、국가、전문가의 병리

일본에서 공해 환경문제대책 지연은 미나마따병(1959 ~ 1968), 담배(1964 ~ 1987), 다이옥신(1983 ~ 1997), 약공해 야콥병(1987 ~ 1997)등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다. 쿠마모또대학(態本大學)에 의한 유기수은설과 후생성 위생조사회에 의한 추인(追認)은 1959년인데 대해서 일본정부가 미나마따병을 공해병으로 인정한 것은 1968년 9월이었다. 수은촉매를 이용한 아세트알데히드 생산공정이 전국에서 없어진 것은 1968년 5월이었으니까 업계보호를 위해서라는 의심도 받는다. 인정이 늦어진 배경은 석유화학 추진정책이며 근거없는 이설(異說)을 퍼뜨린 어용학자들의 활약이었다(見田 1996). 미국 후생성의 담배백서가 1964년 간행된 데 대해서 일본 후생성의 백서는 1987년이었다. 다이옥신문제에서는 에히메(愛媛)대학 타찌까와 료오(立川 涼)등이 소각로에 의한 오염을 발견한 것이 1983년(토오쿄오 도(都) 위생연구소에 의해 제초제 불순물로 발견된 것은 1982년)였지만 후생성에 의한 내용(耐用) 1일 섭취량 설정은 독일보다 11년 늦은 1996년이었다(川名 1998). 약공해 야콥병에서는 미국 후생성에서 경고가 발표된 것은 1987년이었지만 일본 후생성의 사용금지는 1997년이었다. 야콥병의 감염원은 수입품이기 때문에 업계보호라고는 못하지만, 약공해 에이즈와 같은 시민, 환자를 경시한 행정자세가 원인이었을 것이다(井本 1999).

이것들은 다른 선진 자본주의국가와 비교해도, 일본의 자본주의, 국가, 전문가의 병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한편 자동차의 배기가스대책이나 공장에너지 절약과 같이 기업이익으로 이어지는(자동차에서 말하면 해외시장진출에 유리한 것이나 비용절감을 위한 에너지 전략) 환경대책은 선진성을 보여주었다. 하기는 국가에는 계급제와 공익성과 자기목적성(이를테면 부서이익 추구)이 있고, 전문가(이를테면 과학자)에게는 자기목적성(진리추구)과 공익성이 있지만, 자본은 원래부터 이익추구가 목적이라 본래적으로 공익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자본의 병리니 일탈행위니 하기보다 본래의 이윤추구가 순수하게 나타난 데 불과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에도 공익성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小松 2000). 일본에서는 공익성, 공공성에 대한 정의와 해석이 아직도 국가나 자치체에 의해서 독점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국가에 권한과 정보가 집중되어 민주주의가 기능하지 못했던 구소련을 웃어 넘기지 못할 것이다.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시민활동의 커다란 역할은 국가, 전문가, 기업(특히, 다국적 기업)의 공익성을 감시함과 아울러 시민의 에고이즘(이를테면, 선진국시민의 지구자원낭비나 도시주민의 성가신 시설 회피)도 자체점검하는 데 있다.

4. 민중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운동

폭력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인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앞선 대책을 세워 나가려면 '안전보장'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종래의 안전보장은 국가를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데 주목적이 있었고 군사적 안전보장이 중심인데,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도 보증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1994)」이래로 잘 알려지게 된 바와 같이 「인간의 안전보장」은 개인에 역점을 두고 안전보장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인간의 안전보장」은 ① 경제적 안전보장(수입과 노동의 보장) ② 식량의 안전보장(물리적,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식량을 입수할 수 있는) ③ 건강의 안전보장(공중위생, 의료서비스, 노인의료) ④ 환경의 안전보장(생태계의 보전) ⑤ 개인의 안전보장(폭력으로부터의 자유) ⑥ 지역사회의 안전보장(소수자, 선주민, 난민의 인권, 커뮤니티의 유지) ⑦ 정치의 안전보장(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의해서 구성된다. 외무성도 「인간의 안전보장」을 내세우고 오끼나와에서의 「선진국 정상회의」(2000년 7월)에서도 처음에는 "평화와 인간의 안전보장"을 테마로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미 끝난 하이티 경제제재가 어린이의 사망률을 올렸다고 반성한(「세계어린이 백

서」(1996) 유니세프) 적은 있어도, 이라크 경제제재의 정지가 요구되는 일은 없다. 1999년 NATO에 의한 유고공습도 인간의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정당화되었다. 일본정부가 인간의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것은 이라크 경제제재의 유지, 일미(日米) 안전보장조약의 견지, 원전추진, 이사하야만(諫早灣) 간척, 카와베(川辺)강 댐, 유역하수도를 비롯한 불필요한 공공사업추진, 사형제도나 대용(代用)감옥의 존치(存置) 등의 정책과 모순되지 않은 것 같다. 피플스플랜(People's Plan)연구소와 아시아태평양자료센타를 비롯한 NGO는 「인간의 안전보장(Human Security)」는 아직도 국가안전보장의 보완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국가와의 대치도 불사하는 「민중의 안전보장(People's Security)」(이를테면 일본변호사연합회 1998 참조)을 주장한다.

제 3세계네트워크, 옥스팜, 그린피스 등으로 대표되는 발전도상국과 선진국의 주민운동, 시민운동, 협동조합운동, 민중운동은 다국적 기업, 국가, 국제기구가 가져다 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십분 사정(射程)에 두고 민중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환경보전과 사회적 공정의 통합을 위한 방향

영리기업, 공적기관(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의 일탈행동과 폭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비영리협동섹터, 지역사회의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본래 유토피아 사회주의, 아나키즘, 마르크스주의가 대개 공통으로 주장해 오지 않았는가 하고, 나는 생각한다(레이드로 1980 = 1989, 柄谷編 2000, 森野監修 2000 등 참조). 러시아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주의에서 국가주의로,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일탈한 것이 '소련붕괴'와 '자본주의 승리의 환상'의 원인인 것 같다.

체계적인 개혁방향의 제시로, 슈마허학파의 경제학자 로버트슨이 ① 조세와 재정시스템의 개혁 ② 화폐금융시스템의 개혁 ③ 세계화경제시스템의 개혁으로 나누어서 정리한 전망서가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로버트슨 1998=1999).

앞에서 언급한 버진자원 과세, 디파지트 제도, 환경세 등의 제도화도 당연히 필요하게 된다. 유럽의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세율을 낮추는 등의 역진성 대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세계규모에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에 국제정의의 시점에서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에 비례한다(宇澤 1995)는 것도 참고가 되는 아이디어일 것이다. 배출권 거래는 선진국의 낭비구조 개혁을 회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 1990년부터 실시된 황

산화물 배출권 거래의 폐해(일부지역의 산성비를 격화. Dowie 1995 = 1998 참조)에 대한 반성 없이, 온실효과가스에 대해서도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문이다. 배출권 거래를 일괄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낭비구조의 개혁이 선결이라는 우선순위를 애매하게 하지 않도록 신중한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똑같이 이른바 쓰레기처리의 유료화(폐기시점에서의 소비자부담)도 일괄적으로 부정할 뜻은 없지만 디파지트 제도나 폐기물처리, 재이용 가격의 가산을 비롯한 구입시점에서의 소비자부담에서 확대생산자책임(생산기업의 책임을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확대하는)으로, 기업의 환경부하 삭감의 인센티브, 소비자나 사업자에 의한 불법투기억제 등이라는 점에서 유익하고 우선 디파지트 제도(가전, 자동차, 산업폐기물 등도 포함)등을 대폭적으로 도입하고서 그에 대한 보완으로 쓰레기처리의 유료화도 검토하도록 하는 우선순위를 명백하게 해야 한다.

탈원자력발전소법을 성립시킨 벨기에[28]

- 벨기에 현지를 방문하고 -

아오끼 히데끼(靑木 秀樹)[29]

1. 벨기에에서 탈원전법이 2002년 12월 하원에서, 2003년 1월 상원에서 가결되어, 원전 선진국중에서 세번째 탈원전국이 되었다. 이것으로 원전의 원전기간은 40년이 되었으며, 2015년에 돌 1호기가 폐로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에 티안제 3호기가 폐로되면 벨기에 원전은 완전히 종료된다.

탈원전법 성립에 앞서서 일본변호사연합회 공해대책 환경보전위원회의 에너지, 원자력부회원을 중심으로 2002년 11월 16일부터 26일까지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의 에너지, 원자력정책,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처분정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벨기에의 탈원전을 향한 의욕과 반대파의 자세를 보고한다.

2. 벨기에에서 ONDRAF(방사성 폐기물 핵물질 관리회사), 에너지부, 그린피스, 벨고수클리어사(MOX연료 가공회사), 엘렉트라벨사(전력회사)에서 질의응답으로 조사했다.

벨기에를 1996년 6월에도 방문했는데 그때는 원자력발전 의존률이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나라이면서도 탈원전의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보고 감동했었는데, 이번 방문에서 법안이 성립되기 전인데도 탈원전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3. 벨기에는 프랑돌지방, 와로니지방, 브뤼셀 수도권의 3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이 결정권을 갖는 사항과 지방연합체인 정부가 결정권을 갖는 사항이 있는데, 에너지정책

---

28) 「원자력 자료정보실」 통신 345호(2003. 3. 1)에서 번역함.
29) 변호사.

등의 중요사항은 정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원자력정책은 정부가 결정한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지방의 결정사항이지만 2003년부터 해안을 따라서 설치하는 풍력발전계획은 정부가 설치하고 관리하게 된다. 현재 벨기에의 에너지 구성비율은 원자력 57%, 천연가스 23%, 석유, 석탄 17%, 재생가능에너지(수력과 바이오마스 등) 2%로 원자력의존도가 높다.

4.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는 돌에 4기, 티안제에 3기가 있는데 엘렉트라벨사가 이것을 관리 운전하고 있다. 벨기에의 탈원전을 향한 명백한 발자취는 1988년 중도좌파정권의 탄생에서 시작되었다. 1985년에 시작된 티안제 3기를 최후로 신규원전의 건설은 없다. 사실 돌 5호기의 건설계획이 있었지만 1988년에 탄생한 정권은 차후 15년간 신규원전을 만들지 않는다는 모라토리엄을 결정했다. 그리고, 풀서멀에 대해서도 1994년에 10년간의 모라토리엄을 결정하고 1993년에 계약한 것이 끝나면 그 후에는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999년 6월에 탄생한 보수당, 사민당, 녹색당의 연합정권은 현재 운전중인 원전의 수명을 40년으로 정하고 그후부터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원전의 수명을 40년으로 정한 것은 보안위원회가 제기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따른 것이다.

5. 벨기에의 각 정당의 원전에 대한 의견과 세력은 다음과 같다. 녹색당, 사민당은 반대, 보수당은 태반이 반대, 기독교민주당은 추진인데 그 세력은 녹색당 8%, 사민당 15%, 보수당 30%, 기독교민주당 30%이다. 새로운 에너지정책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원전의 조기폐쇄는 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은 보수당의 정책이 반영된 타협의 산물이다.

6. 탈원전이 선택된 결정적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라고 에너지부의 홍보관은 설명했다. 원전은 건설이나 폐로 등 종합적 비용 대 효능을 생각해야 하지만 투자된 자본회수가 장기간인데다가 위험성이 크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단기적 회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원전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 천연가스라면 값도 싼데다 단기적 투자회수도 가능하다.

그 밖의 중요한 요인은 핵폐기물처리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점, 그 밖에 환경보전의 관점과

핵확산에 의한 테러의 공포가 있다는 것 등이다.

7. 에너지부에서는 탈원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이제까지 원자력개발에 기여한 사람의 감정론과 교오또 의정서의 CO_2삭감을 클리어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대별하고 있었다.

엘렉트라벨사에서는 세가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하나는 기술적 문제로 원자력의 대체 에너지는 없다는 것, 하나는 경제적 문제로 원자력발전은 경쟁력은 있는데 가스 등의 발전은 경쟁력이 없다. 하나는 환경문제로 원자력을 그만두고 천연가스로 하면 CO_2가 증가해서 교오또 의정서의 CO_2삭감을 클리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는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산업을 육성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반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벨기에의 원자력발전 5713MW는 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1600MW와 코제네에 의한 3000MW와 에너지절약으로 713MW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CO_2문제에 대해서 에너지부는 다음같이 설명했다. 전력은 CO_2발생률의 20%인데, 발전을 위해서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해도 CO_2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산업분야,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CO_2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의 삭감으로 커버할 수 있다.

8. 이상과 같이 엘렉트라벨사의 반대의견은 그리 설득력이 크지 않고 반대의 자세도 강력하지 않았다. “전력자유화 사회에서는 원전은 너무 큰 투자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 작은 원전을 만들지도 모르지만 현재의 정치상황에서는 그것도 아니다. 탈원전법에 대해서 독일처럼 법적투쟁을 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벨기에가 탈원전을 향해서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ㅎ –

집을 잃은 사람들[30)]

콜린 워드(Colin Ward)[31)]

집에 종속된 삶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 결정권을 지닌 특정계층의 사람들이 통제하고 선택권을 독점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고 통제에 따르며 주어진 선택권의 범위 안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징은 ‘주거’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볼 수 있다(역사를 통해 보면, 사람들은 주변의 재료들, 그리고 그들 자신과 이웃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생활의 필수조건중의 하나인 ‘주거’를 충족시켜왔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놀랍고도 풍부하고 다양한 각 지역 특유의 건축양식은 목재, 짚, 풀, 낙엽, 가죽, 돌, 진흙, 뼈, 그리고 심지어 눈을 이용하는 기술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글루(igloo)는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한 주거형태(재료비용과 운송비용이 없는 물(얼음)로 만들어진 것)이다. 요즘 에스키모인들은 북쪽지방의 작은 빈민촌에서 복지수당을 받으며 살고 있다. 하브라켄(Habraken)은 “인간은 더 이상 집을 짓고 사는 능동적 삶이 아니라 집에 종속된 수동적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도시의 미등록 시민들과 그들의 공간

오늘날 세계인구의 삼분의 일은 정부나 주택업자의 간섭 없이, 혹은 그런 간섭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한다. 부유한 나라에서는 건축기술이 진보하면 할수록 집을 짓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처리하기 힘든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 어느 나라에서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거대한 공공투자가 빈곤층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행해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제

30) 『Anarchy in Action』(1973년)의 제 7장 「We house, You are housed, They are homeless」를 번역했으며, 소제목은 편집자의 것임. 참고문헌 생략.
31) 1924년 영국 태생으로, 47년부터 60년까지 『Freedom』이라는 아나키즘 주간 잡지의 편집자였으며, 61년부터 70년까지는 월간 『Anarchy』의 편집을 담당.

3세계 나라들에서 거대도시로의 엄청난 인구이동은 도시 주변에 불법거주지역의 확대를 초래했다. 패트 크룩(Pat Crooke)은, 도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한가지는 공식적이고 이론적인 면에서이며, 다른 하나는 대중적이며 실제적인 비공식적인 면이라고 지적한다. 또, 그는 많은 라틴 아메리카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의 통계수치에서 벗어나서, 그들 나름의 경제를 꾸려 나가는 미등록 시민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래는 이런 거주지역에 대한 바바라 워드(Barbara Ward)의 묘사이다(각 나라마다 이런 지역의 명칭이 있다. 멕시코의 colonias proletarias, 페루의 barriadas, 튀니지의 bivilles, 인도의 bustees, 터어키의 gecekondu, 베네수엘라의 ranchos).

> 개발도상국의 어떤 도시에서 차를 몰고, 새롭게 꾸며진 멋들어진 공항과 호텔 사이를 오가는 도중에, 당신은 그 도시거주자의 반 이상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빈민지역을 지나치게 된다. 때때로 현대적인 고속도로가 그 빈민지역 위를 가로지르기도 한다. 아래를 쳐다보면, 음식을 만들면서 피어오르는 연기, 쭉 늘어서 있는 빽빽이 쌓여진 볏짚단들, 여기저기 흩어져 굴러다니는 벽돌이나 찌그러진 캔깡통을 볼 수 있다. 또, 큰길을 따라 간혹 나타나는 판자촌을 보면, 길게 늘어선 판잣집 행렬, 움푹 패인 구덩이, 진흙탕 길, 쓰레기 더미, 오물을 쪼아먹는 깡마른 닭, 거의 발가벗고 머리카락은 엉망인데다가 빈약한 다리에 눈은 게슴츠레한 어린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앙상한 나무사이로 널어놓은 낡고 찢어진 천이나 옷감들이 있는 광경이 펼쳐진다.

이것이 바로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이다. 제대로 사는 지역 도시민들은 이런 곳이 있는 것조차 모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에게는 도시생활경제의 발판으로서 스스로의 터전에 자리잡고 있다고 느껴질까? 시 관리, 정부관리, 언론, 국제기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지역은 범죄, 질병, 사회와 가정 붕괴의 온상이라고 여긴다. 그 지역들은 관의 제재나 재정보조 없이 땅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생겨난 곳인데, 그들의 생각에서 보면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페루의 barriadas에서 10년간의 연구는 그런 관점이 대체적으로 부정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비록 연구라는 행위가 어느 정도 정치적이고 관료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혼란과 붕괴 대신에, 폭력적인 경찰의 진압에 직면하여 고도로 조직화된 공유지 점거, 1년마다 있는 지역선거에 기초한 지역자치의 정치조직 구성, 경찰이나 공공서비스의 부재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면서 더불어 사는 수천명의 사람들의 존재를 알려준다. 처음에 공유지를 점거할 당시 짚으로 만들어진 집들은,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노동력과 재료공급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르게 벽돌이나 시멘트 구조물로 변한다. 고용비율, 임금, 문맹퇴치, 그리고 교육수준은 도심 빈민촌(대부분의 barriada 거주자들은 여기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다)보다 높으며 또, 국가 평균치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범죄, 십대 비행, 매춘, 도박 등은 사소한 도둑질을 제외하곤 매우 드물며 도둑의 발생 비율도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적 낮다.

불법적 주거점거와 자생력

이러한 보고사례는 전세계의 많은 지역의 불법적 주거점거의 예로부터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다. 존 터너(John Turner)와 윌리엄 만진(William Mangin)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페루의 barriada의 사례(빈민들의 대량 이주, 자치사회 개발)는 미국에 적용될 수 있는가"

몇몇 학자들은 페루, 브라질, 칠레, 터어키, 그리스, 나이지리아 정부들이 빈민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써 'barriada 운동'을 채택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에서도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왔다. 사실, 위의 정부들이 행한 'barriada' 형성의 중요한 역할은 대량의 공유지 불법점거를 막을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에 있었다. 그들 정부는 힘도 없었을 뿐더러 무력으로 막는다 해도, 그것이 정부의 존립에 도움이 될지를 확신하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워낙 힘이 막강하여 그러한 불법점거는 쉽게 예방할 수 있고, 더구나 땅 한 조각이라도 분명하게 문서를 통해 누군가에 의해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또, 터너와 만진은 오스카 루이스(Oscar Lewis)가 『빈곤의 문화(The Culture of Poverty)』에서 얘기하는 교훈을 지적한다.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주택정책은 빈민들이 경제적인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그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등 별로 효과가 없는 반면에, 사람들 스스로가 이주하여 땅에 정착해 집을 짓고 공동체를 이룰 경우에는, 그 효과는 상당하다는 것이다. 루이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공공주택 정책에 의해 San Juan의 자립공동체로부터 이주하게 되었을 때, 진짜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자생력을 잃는다고 한다. 공공주택 입주를 위한 집세와 초기 입주비용이 높아 입주가족은 집세를 제때에 가까스로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이다. 더불어서, 공공주택단지는 그 주택에 꼭 살아야 하는 그런 절실함이 없는 전문가

들(계획입안자, 건축가, 경제전문가)에 의해 지어지기 때문에, 주택조성시에 실제로 입주할 거주자에 대한 어떠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려도 하지 않는다. 터너와 만진은 결론맺기를, 미국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각 기관들이, 페루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상 그들을 가난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다.

아나키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제 3세계의 판자촌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힘있고 권위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의 빈민들이 잃어버린 세 가지 자유를 가지고 있다. 존 터너에 의하면 그 세 가지 자유는, 첫째, 살 곳을 택할 자유, 둘째, 그들 스스로 필요한 것을 조달할 수 있는 자유, 셋째, 그들 스스로의 삶의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자유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떤 땅이라도 법의 보호아래 누군가의 소유로 되어 있다. 건축이나 도시계획에 관련한 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관련법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거나 관계기관에 로비를 잘 하는 건축가나 사업중개자를 고용하지 않는 한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없다.

스쿼트운동

영국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정확히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만약 재산에 관한 신성한 권리에 대한 저항의 사례를 찾고 있다면,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여진 수많은 선례가 있다.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들은 모두 스쿼터(squatters)들이었으며 땅을 나누어 가질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들이 계속 있어왔다. 17세기에는 집이 없는 사람은, 지역공동체의 동의하에 공유지에 작은 정원이 딸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공동체 회의(Quarter Sessions)에 요청할 수도 있었다. 영연방시절의 Digger Movement[32]는 Weybridge 근처의 George's Hill에 이 권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크롬웰의 군대는 그들의 집을 불태워 버렸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례로 가득차 있다. 또한 확실하게도,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공유지 탈취의 예도 수없이 많이 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삶의 공간을 만들어 자립적으로 주거를 마련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면, 그러한 자립사회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만약 단순하게 집과 관련한 민중의 직접행동의 예를 본다면, 그것은, 1946년의 스쿼트(빈집점거)운동을 제외

32) 연방시절 크롬웰과 그의 정책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Weybridge근처의 조지 힐(St George's Hill)이란 지역의 공유지를 점거하여 자치적인 협동농장을 이루면서 저항했던 운동으로, 크롬웰의 군대와 지역 지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1649년에 시작하여 1651년까지 지속되었음.

하고, 1915년의 글래스고우(Glasgow)나 1938년의 이스트 런던(East London)에서 있었던 집단 집세 거부운동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혁명의 시대가 아니었던 1946년의 스쿼트운동에서 민중의 직접행동에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 단계가 있었다. 첫째, 발단(initiative),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개인의 행동과 결정, 즉 운동에 불을 붙이는 점화의 단계, 두 번째, 연대(consolidation), 운동이 재산권을 위협하는 정도로 널리 퍼지며, 국가권력에 의해 진압당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커지는 단계, 세 번째, 성공(success), 국가권력이 운동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야만 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공적 행위(official action), 민중의 요구를 회유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하는 조치의 단계, 또는 그 요구를 체제 내로 흡수함으로써 일반화시키는 단계이다.

1946년의 스쿼트운동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텅 빈 거대규모의 군대캠프를 점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해 5월 링콜른쇼어(Lincolnshire)에 사는 몇몇 집을 잃은 가족들이 빈 캠프 하나를 차지하면서부터다. 그리고, 이것은 산불처럼 영국의 모든 지방에 있는 수백 개의 캠프가 점유될 때까지 퍼져 나갔다. 10월까지 1,038개의 캠프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40,000가구, 스코틀랜드의 5,000가구로 채워졌다. 그 달에 정부의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에노린 비번(Aneurin Bevan)은 정부에서 집을 마련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스쿼터들을 비난했다. 사실 그들은 주거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할 건물로 들어간 것뿐이다. 그 때 그전까지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노동부(Ministry of Works)가 갑작스럽게 복지부에, 과거 사용되어진 850개의 캠프를 제공함으로써 ‘스쿼팅(squatting)’은 ‘합법(official)’이 되었다.

처음 시작했던 스쿼트 공동체의 몇몇은 수년간 남아있었다. 옥스퍼드쇼어(Oxfordshire)의 필드 팜(Field Farm)이라는 캠프에는, 1946년에 옮겨간 수백가구가 있었는데 그들은 12년 동안 함께 살다가 같은 지방의 베른스필드(Berinsfield)라는 새로이 마련된 마을로 마침내 이주하였다.

‘합법(official)’ 스쿼트와 ‘비합법(unofficial)’ 스쿼터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첫 해 겨울을 보낸 랑카쇼어(Lancashire)의 캠프에 관한, 한 신문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 그 캠프 안에는 두 개의 캠프가 있다. – 합법적인 스쿼터(스쿼팅이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되면서 옮긴 사람들)과 비합법적인 스쿼터(초기에 불법적인 점거였지만, 당

국에서 눈감아 주어 그대로 그 곳에 머물러 있는 베테랑들). 양쪽 모두 똑같이 일주일에 10센트의 집세를 낸다. 집세를 똑같이 낸다고 해서 그들에게 똑같은 권리가 있다고 상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베테랑들이 '합법적인' 스쿼트들의 판잣집 내부 공사를 해주고 싱크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해준다. 이 일꾼들은 그들 혼자 힘으로 뭐든지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곳을 방문한 정부의 주택부문에서 일하는 한 젊은 공무원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베테랑 일꾼들은 스스로 할 일을 준비하면서 집수리, 커텐달기, 페인트 칠하기 등 갖가지 일을 주도적으로 하였다. 반면에 '합법적인' 스쿼터들은, 비록 그들이 가장 소름끼치는 빈민가로부터 이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뚝뚝하게 앉아 그들의 운명을 신세 한탄하면서 일꾼들 옆에서 가끔 손을 빌려주는 정도였다. 아마도 그 베테랑 일꾼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좀더 나은 생활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자유롭고 자립적인 행동을 이끄는 것과 그에 비교하여 종속적이고 무기력한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다. 자신을 위해 스스로 찾아 일하는 사람들과 그저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 말이다.

영국에서 일어난 최근의 스쿼트운동은 1960년대 좌파가 참여했는데, 켄트(Kent)에 있는 집없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인 킹 힐 호스텔(King Hill hostel) 개선을 요구하는 1년 동안의 투쟁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운동은 자연스럽게 그 수용시설의 거주자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외부사람들이 합류했을 때는 그들의 역할은 조언을 해주고, 정보를 입수하고, 바깥 세상에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일에만 한정시키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거주자들 스스로 하였다. 이런 운동형태는 이후로 진행된 모든 운동에서 반복되어 일어났다. '킹 힐 운동'의 성공으로 스쿼트운동은 빈집점거로 이어졌다(대부분의 빈집은 도로확장, 주차장, 정부청사 등을 위해, 철거가 확정되어 당국에 의해 사들여졌거나 개발업자들과의 협상중에 있는 것들이었다).

이 스쿼트운동은 처음에는 당국의 반대에 부딪치고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스쿼터들을 겁주고 내쫓기 위해 사설탐정이나 철거용역반이 동원되었다. 시의회도 스쿼터들을 내쫓기 위해 암암리에 철거를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런던 스쿼트연합(The London Family Squatters Association)은 스쿼팅 가족들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도록 시의회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탄원을 하였다. 몇몇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의회는 스쿼터들을 인정해주기도 했다.

스스로 삶의 환경을 창조하는 것

영국의 주택정책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들 중의 하나는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괴리이다. 거의 시(市) 인구의 삼분의 일이 시가 운영하는 건물에 사는 사람들인데, 소수의 협동주택단지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사는 곳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사는 집이 시에서 지은 집보다는 넓지도 못하고 시설도 안 좋지만, 그들 스스로 집을 꾸미고 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았다. 대신에 시에서 제공한 집에서 사는 입주자들은 그들 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 대한 애착은 적을 수밖에 없다. 입주자들이 느끼는 의존적이거나, 어딘가 답답한 마음은 그들이 어떠한 주거상황에 처했는지 잘 반영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것을 이리저리 뜯어고치고, 변화를 주면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개선해 가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환경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창조한 그런 삶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계속 오르는 집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입주자들은 공동대응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의 공동대응은 입주자의 지위향상을 가져올 것이고, 입주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시 소유의 건물 입주자들이 그 건물을 공동소유로 한다는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한 매우 그럴 듯한 것이다. 왜냐하면 시 업무에 대한 우리의 상식은 아직도 19세기의 온정주의의 관습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가능성으로, 노르웨이의 오슬로(Oslo)의 잘 정리된 예를 들 수 있다. 전쟁 전에 만들어진 오래되고 낡은 건물을 고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입주자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이때 실험적으로, 그 건물은 입주자들에게 넘겨졌으며, 이런 정책은 그 건물과 입주자들의 태도를 확 바꿔버렸다. 현재 오슬로의 모든 주택정책은 이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이 아나키 사회는 아니지만 아나키 사회의 구성요소들 중의 하나인 것이다.

가족에 대하여[33]

콜린 워드(Colin Ward)

성해방

현대사회에서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아나키스트 혁명 중의 하나는 성혁명이다. 이것은 국가와 종교집단이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해 부과한 권위적인 법과 규율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나키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도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매우 잘못된 관점) 가족의 붕괴 때문이 아니라, 서구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들만의 자유로운 성생활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더 많은 성의 자유가 무시무시한 결과(원하지 않은 아기, 성병 등등)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젊은이들이 피임을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성병에 대한 오해나 무지를 그대로 내버려둠으로써 자신들의 예언이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성규범은 기독교 교회에 의해 국가전체로 퍼졌으나, 교회가 쇠퇴함에 따라 이에 기반한 성규범을 정당화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엠마 골드만(Emma Goldman)에서 알렉스 컴포트(Alex Comfort)에 이르는 아나키스트들은 정치적 억압과 성적 억압과의 관계를 인식해 왔다. 성해방이 필연적으로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해방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낙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성해방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함에는 틀림없다.

성도덕

성도덕을 정당화할 불변의 진리는 없다는 것은 각각의 시대와 나라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성문제에 대한 규율과 관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남자의 동성애는 단지 그것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문제'가 되었다. 여자의 동성애는 입법자들(남자)이 무시하였기 때

33) 『Anarchy in Action』의 제 8장 「Open and Closed Families」를 번역했으며 소제목은 편집자의 것임. 이 글의 현재 시점은 1971년임.

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법이란 것은 때때로 우습기 짝이 없다. 스코틀랜드에서 남자와 여자의 항문섹스는 합법이지만 남자간에는 왜 불법인지 누가 설명할 수 있나? 잉글랜드에서는 21살이 넘은 남자간에는 괜찮으면서 왜 남자와 여자의 항문섹스는 불법인가?

법을 더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치면 고칠수록 점점 더 많은 부조리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이 말이 성적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도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 합리적인 도덕률은 단지 많은 비합리적인 것들에 묻혀 있거나, 전혀 관계가 없는 사회의 금기사항에 의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섹스를 "가장 건강하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즐거움"이라고 보는 알렉스 컴포트는 성적 행위에 대한 실제적 내용은, 죄책감 없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문화간의 차이로 인해 조금씩 달라진다고 말한다. 그는 성적 행위에 대한 두 가지 도덕적 명제를 제시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야만 한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하지 않는 아기가 태어나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의 이런 명제에 대해 모라이스 카스테어스(Maurice Carstairs)교수는, 아나키스트인 컴포트가 왜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를 비꼬았다. 이에 대해 컴포트는 '자유'의 철학은, 권위적인 법에 의존하기보다는 각 개인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말하기를, 오늘날 성문제에 대한 상식의 결여나 십대들에게 종종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한 행동은, 예민한 젊은 이들에게 납득할만한 원리 원칙을 제시하기보다 말도 안 되는 '순결'이라는 규범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한다.

가정의 필요성

현대의 핵가족화가,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명쾌한 대답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에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에드문트 리히(Edmund Leach)는 "좋은 사회의 기본요소와는 거리가 먼, 약간의 사생활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밀들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천" 이라고 말하고 있다. 데이비드 쿠퍼(David Cooper)는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사회에 있는 최후의 치명적인 독가스실"이라고 부른다. 또, 야쿠에타 혹스(Jacquetta Hawkes)는 "그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 두려울 정도로 엄청난 요구를 부과하는 하나의 구성형태(외로움에 대한 공포감, 가정을 꾸리면 해야 할 너무나 많은 일들, 심리적 긴장

감, 가정 실패에 대한 걱정)" 라고 '가족'을 설명했다.

분명하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한 하나의 안락한 보금자리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가족'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당신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가늠해 볼 수 있다. "나는 내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행복한 가정을 알고 있는가?"

'존 시티즌(John Citizen)'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디스코텍에서의 몇 번의 행복하고 로맨틱한 밤을 잊지 못한 그와 메리(Mary)는,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는 서약을 하고 국가나 교회에서 내주는 배우자와의 결합을 증명하는 결혼증서를 받는다. 그들이 가족을 이루고 살기 위한 집을 마련했다고 가정하고 몇 년이 지난 뒤 그들을 살펴보자. 그는 매일 일터와 가정을 오가며 힘겨워하면서 어딘가에 얽매어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의 아내도 똑같이, 집안일을 하는 주부로서, 부엌일과 청소를 하면서 그저 단조로운 일상에 갇혀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아이들도 역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자라면서 부모에 의해 구속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왜 엄마와 아빠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까?

어쩌면 위와 같은 뻔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삶을 선택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가족의 형태

개개인의 행복과 풍요로움에 대해서만 따져보면, 현대사회의 '가족'은 19세기보다는 나아졌으며, 권위적인 이상주의자들이 꿈꿔온 여러 가지 다른 제도를 생각해 보더라도 어떤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들의 생활을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텔레비젼 광고에서부터 상속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은, 견고하고 작은, 핵가족이라고 하는 소비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주택을 보면 분명하다. 도시의 주택은 표준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가족단위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고 있으며, '공동체'를 위한 담보나 대출은 불가능하다.

집안일과 자녀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부자들은 사람을 고용하여 단지 돈을 지불함으로써 쉽게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통 가정에 대해서는, 이 가족형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요구사항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모두에게 보편적인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이 ‘엄마의 부엌’과 같은 환경보다 좀더 크고 안정적인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가정적인 집단에서 길러지는 사례를, 리히(Leach) 박사가 꼽는다면, 단지 이스라엘의 키부츠나 중국의 마을공동체뿐이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은 다가오고 있다. 여성해방운동이 지금의 핵가족제도가 여성의 종속을 초래한다는 인식 하에 일어나고 있다. 몇몇 젊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동체나 공동으로 가사 일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분적 이유로는 점점 비싸지는 집세를 분담하려는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지금의 가족형태에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

이 사회가 가진 ‘생물학적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이고 신성한 가치는, 불임부부들로 하여금 절망 속에서 살도록 하고 있으며, 또, 어떤 부부들에게는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가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가치는 또한 자식에게 지나칠 정도로 많은 감정을 쏟아부어 나중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매달리면서 온갖 기대를 하게 만드는 일반적인 상황을 만들어낸다. 반면에 어린 자식들은 그들 부모의 소유욕적인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길 간절히 원하게 된다. 『안전한 가정(A secure home)』을 쓴 존 하트웰(John Hartwell)은 ‘안전한 가정’에서는 인간관계가 단조로운 모방의 형태에 머물고, 창조와 변화의 욕구는 이탈의 증거로 치부되어 버리는, 어찌 보면 숨막히는 환경을 종종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그들 스스로 기대고 싶어하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와는 거리가 멀지만, 몇 개의 흥미로운 실험이 시도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 모든 것들은 부모와 자식 양쪽 모두에게 이로움을 가져다주는 느슨한 가족형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폴(Paul)과 진 리터(Jean Ritter)는 스물 다섯에서 마흔 가구를 돌볼 수 있는 ‘어린이 집(children's house)’의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폴 굿맨(Paul Goodman)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청소년의 집(Youth House)’을, 테디 골드(Teddy Gold)는 ‘복합가족 주거단지(Multiple Family Housing Unit)’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이 육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것들은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크로포트킨(Kropotkin)이 말한 것처럼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이다”라는 기본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육아의 책임을 공유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들은 또한, 어린이들에게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도 부여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은 지금 우리의 가족구조에서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각 개인마다 요구와 열망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의 경향을 수렴하여 하나의 획일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은 어리석고 무리한 일이다. 한쪽에서는 부모의 지나친 소유욕이나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이 비뚤어지는 것을 바로잡아 보고자 하는 요구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육아기관에서 돌보기는 하지만 따뜻한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감성상의 장애를 가지는 아이들에 대한 치료의 요구가 있다.

보통 집안일은 가족내에서 각각의 구성원이 서로 책임을 분담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단조롭고 힘든 일을 각각 혼자서 하기보다는 함께 모여 같이 처리하고, 또 말썽을 부리거나 독선적인 아이들이 방치된 채로 홀로 남겨지기보다는 그들을 함께 같이 돌볼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는 가족의 구성형태보다는 그들이 가족내에서 가지는 자기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중요하다.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가정내의 폭력은 단지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히 참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 폭력이 행사될 수 있었던 것이다.

덜 성숙한 어른과 우리의 미래

진보적인 교육자들 사이에는 오래된 슬로건이 있다. “그들을 낳고, 사랑하고, 홀로 내버려두어라”. 이것은 아이들을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대들과 성인 어른들의 반수가 가지는 불행과 좌절감이 한 개인에게 거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인해 그 개인이 받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압력에 기인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공적인 의무교육 과정의 계속적인 확대는 어린이들에게 진짜 책임감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시기를 늦추는 역할을 할 뿐이다. 어떤 학교 선생님이라도, 일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직업학교에 다니는 16살짜리 학생과, 같은 나이지만 계속 학교에만 다닌 학생과의 차이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아이들이 노동하고 있는 소위 후진국의 경우에, 아이들에 대한 착취적 요소도 발견하겠지만, 아울러 현실세계에서 책임감을 배우면서 성숙해지는 아이들의 모습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미묘한 덫에 걸려 있다. 사춘기 연령과 결혼연령이 낮아지는 반면에, 동시에 어른세계로 들어가는 시기는 절대 다수의 평균연령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춰지고 있

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어른들이 덜 성숙한 상태로 사회로 내버려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가족생활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지 못했으며 현재의 가족 안에서는 제대로 풀기 힘든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소수의 젊은이들(그 소수는 늘어나고 있다)에게는, 수세기 동안 그들의 조상을 억압하고 통제해 왔던, 성적 행위나 성적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단순히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시대의 긍정적인 성취들 중의 하나로서 미래에 확실하게 남겨질 것이다.

■ 광 고 ■

『환경과 反차별』 소책자 시리즈 1

폭력론 노트 – 비폭력 직접행동이란 무엇인가

무까이 꼬오(向井 孝)

목 차

발행 : 2003. 3. 7. 가격 2,000원

부시의 전쟁은 끝났다. 이라크 침공이 일단락됐다는 뜻이다. 이제부터 세계사는 재편될 것이지만 그렇게 미국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당초 미국은 다소 전쟁의 목적을 까무프라치했지만 이제 그들은 드러내놓고 있다. 부시, 럼스펠드, 체니 등 네오 콘(neo-con)들은 이 전쟁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또, 후세인과 그들 일당을 추방하는 것이 최종목적이 아니라는 말도 했다. 이제와서, 그들은 이라크의 석유를 처분해서 이란,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미국의 괴뢰정권을 만드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이라크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말은 웃기는 얘기지만 '미국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한다.

미국은 처음부터 그러한 나라였다. 우리는 미국을 알아야 하고, 알게 되었다. 우리가 '非戰'을 내걸고 각 개인이 조그만 힘을 각자가 가다듬고 마침내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되게 하려고 싸우고 있다. 그 하나는 우두머리가 있는 하나가 아니다. 우두머리 없이 하나로 이어지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은 비폭력적 일상생활에서 자라나는 힘이다. 나는 이러한 비폭력적 힘으로 미국의 야만에,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기승을 부리는 야만에 맞서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 ㅎ -

어떤 인터뷰에서 이라크 여성은 "대량살상무기는 다름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했다. 과연 부시놈은 제 스스로가 이라크에서 얼마나 많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지……

지금 전쟁의 명분인 대량살상무기를 찾아 샅샅이 뒤지고 있는 미국놈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가장 파괴력이 강한 대량살상무기는 핵무기도 아닌 바로 부시의 대가리일 것 같은데, 이 놈이 해체되려면 과자가 목에 걸려 죽든지 해야 되겠지만, 다음에 나타날 또 다른 꼴통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공동체로'로의 질적 전환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국에서의 파병문제를 보더라도 국익논쟁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우리사회가 경제성장의 신화를 버리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 논점을 슬쩍 비켜나가서는 어떠한 상식적인 결론에도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등대 2 -

지금까지 오직 미국만이 핵무기를 사용했다. 1945년 일본에, 1991년 이라크에. 이라크의 방사능은 45억년의, 지구만한 시간이 흘러야 없어진다고 한다. 국립 암병원,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소년은 사진찍기 싫다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 건강했던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검은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은 암, 백혈병으로 괴롭게 죽어가고 있었다.

2003년. 치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투성이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이로써 세 아이가 죽었다. 한꺼번에 세 아이를 잃은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어루만지다가 가슴에 얼굴을 부비며 울었다. 인간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깊은 형제애를 느끼며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풀 길 없는 분노를 꽝꽝, 칭칭 동여 매었다.

– 도라지 –

이번 6호는 예상보다 50여일 늦게 발행되고 말았다. 결국, 준비했던 글들이 시의성을 잃어, 제 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부시 그룹측의 주관적인 추정유죄원칙에 따른 선제공격으로 진행된 대이라크 예방전쟁은, 이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식민지 개조중에 와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개겼던 시리아, 북조선 등에 주어질 벌칙과 비교해 볼 때, 과연 한국정부의 제국주의(군사적) 종합보험은 확실히 챙겨갈 국익이 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다.

애초부터, 그 국익은 자국의 일반시민의 관심과 바램과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치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전과 비교하여, 큰 물결처럼 일어난 한국의 평화운동은 이제 슬슬 뒷정리를 하는 분위기인 듯. 그간의 대응으로, 미루어두었던 본래의 일로 복귀하는 것은 자연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본래 일로의 복귀는 이전과는 달리, 평화(운동)라는 문제의식의 날을 세운 복귀여야 하지 않을까.

그간 허덕허덕 쫓아다니다, 스스로가 가다듬어보지 못한, 몇 가지 Key-word(미국의 세계지배전략, 석유문명,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평화와 평화운동 등)에 대한 스스로의 정리, 스스로의 일에 평화(운동)의 반영, 평화교육의 준비 및 참여 등을 제안하고 싶다.

평화운동은 전쟁시기에 국한되는 운동이 아닐 것이며, 평화운동단체만의 몫도 아닐 것이다. 환경의 눈으로, 여성의 눈으로, 온갖 차별의 눈을 통해, 평화(운동)는 전쟁이 없는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할 과제이지 않을까?

– 빵돌이 –

알 림

1. 『환경과 反차별』 소책자 시리즈를 내면서 카페(cafe.daum.net/anarchism)도 조금 손을 보았습니다. 게시판을 「오늘의 아나키즘」, 「비폭력 직접행동」, 「환경과 반차별」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소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딴지거는 이야기에서부터 응원하며 맞장구치는 이야기까지 각자의 의견과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희망합니다.

2. 그간 발행된 『환경과 反차별』 1, 2, 3, 4, 5호와 이번 6호 및 소책자 시리즈 『폭력론 노트 – 비폭력 직접행동이란 무엇인가』와 『오늘의 아나키즘』은 카페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 反차별』 및 소책자 시리즈 주문

1. 주문 내역을 메일로 알리고 해당 금액을 통장으로 보내 주시면, 입금 확인 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대략 일주일 정도 소요 예상).
2. 우편 발송 비용(단위, 원)
 – 소책자 시리즈 : 2권 이하(1,000), 10권 이하(2,000), 20권 이하(3,000), 20권 이상(5,000)
 – 「환경과 반차별」 6호 : 우편 발송비 3권 이하(500), 단 소책자 시리즈와 동시 주문시 무료
3. 입금(예금주, 윤무영)
 – 우리은행 726-302435-02-001
 – 국민은행 536202-01-310975

『환경과 反차별』 No 6.

- 발행 : 『환경과 反차별』 편집 동인
- 펴냄 : 2003. 4. 28
- 연락처 : http://cafe.daum.net/anarchism
- 이메일 : butaband@yahoo.co.kr
- 판매 : 1.500원(우편 발송시, 우편 비용 추가)